

제428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26일(화)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5)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4)
4.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2)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5)
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5)
7.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1)
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2)
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8)
1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9)
1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2)
1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5)
1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6)
1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1)
1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7)
1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9)
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5)
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0)
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0)
2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3)
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0)
2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3)

2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4)
24.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6)
25.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5)
26.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6)
27. 필수수산물 지원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3)
2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0)
2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0)
3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19)
31.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0)
3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1)
3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5)
3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6)
3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2)
3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5)
3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9)
38.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0)
3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6)
40.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9)
41.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2)
4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0)
43.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4)
4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7)
4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8)
46.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마. 해양경찰청 소관
47.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상정된 안건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6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5) 7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4) 7
4.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2) 7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5) 7
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5) 7
7.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1) ... 7
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2) 7
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8) 7
1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9) 7
1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2) 7
1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5) 7
1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6) 7
1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1) 7
1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7) 7
1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9) 7
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5) 7
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0) 7
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0) 7
2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3) 7
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0) 7
2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3) 7
2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4) 7
24.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6) 7
25.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5) 7
26.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6) 7

27. 필수수산물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3)	8
2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0)	8
2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0)	8
3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19)	8
31.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0)	8
3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1)	8
3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5)	8
3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6)	8
3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2)	8
3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5)	8
3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9)	8
38.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0)	8
3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6)	8
40.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9)	8
41.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2)	8
4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0)	8
43.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4)	8
4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7)	8
4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8)	8
46.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8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농촌진흥청 소관	
라. 산림청 소관	
마. 해양경찰청 소관	
47.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8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여기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 개선 및 새로 회부된 법률안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 심사 방식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법률안 및 결산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법률안과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응답을 포함한 대채토론을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새로 임명되신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김인호 산림청장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김인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두 분 청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면……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자료 요청만 하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해수부장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된 예비비 867억 원을 의결한 것으로 언론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세부내역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우리 장관님한테 말씀하셔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해수부장관님, 이만희 위원님 자료 요구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위원장님, 잠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어기구**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이만희 위원님께서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한 예비비의 세부내역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의 세부내역은 다음 연도 5월 달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해수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부처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를 드렸듯이 큰 항목별로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장관님,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사용·책정되고 있는 예비비가 과연 부처의 이전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 물론 그 전례가 없던 건 아니라고 저는 보지만 또 금액 자체도 867억, 또 여기 이어 가지고 새롭게 해수부가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해수부 이전 관련, 연내 이전 목표로 지금 이전하고 있는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해수부 부처에서는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이 내역이 비밀이 아닌 이상은 제출해 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런데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국가재정법 52조 조항에 따라서 해수부에서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희들이 기재부에 제출을 하고요. 그러고 난 뒤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총괄명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 총괄명세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장관님, 어떻게 밑에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아니, 국가재정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답변을, 아까 대항목 관련해서는 제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왔어요. ‘청사 공사 비용, 이사비, 이주지원비, 거주지원비, 교통지원비 등이 포함된 예산 867억 원을 예비비로 확보했다. 세부내역은 기재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출 못 하겠다’, 지금 제출 못 하겠다는 답변 내용조차도 장관님이 알고 계신 경우하고 좀 다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고요.

저희들이 청사 공사 비용부터 시작을 해서 교통비 지원까지 큰 항목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52조에 따라서 그동안 정부부처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음 연도, 내년도 5월 달에 제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쪽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없이 저희가 예비비를 항목에 맞게끔 철저하게 집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어 주시고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예비비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믿어 달라는 얘기로 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응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위원님, 믿어 주시고 맡겨 주시고 내년 5월 달에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세부내역이 제출될 겁니다. 그때 가서 확인하시고……

○**이만희 위원** 저는 그렇게 장관님 말씀대로, 믿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제가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차피 해수부 이전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전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관련 지형에서 예산의 낭비라든지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내년 5월 달에 세부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관님.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차관들께서는 장관을 대신해서 예결위 회의에 참석하느라 우리 위원회 회의에는 부득이 이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10분)

○**위원장 어기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국민의힘 이만희 위원을 정희용 위원으로 개선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5)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4)
4.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2)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5)
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5)
7.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1)
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2)
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8)
1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9)
1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2)
1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5)
1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6)
1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1)
1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7)
1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9)
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5)
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0)
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0)
2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3)
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0)
2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3)
2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4)
24.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6)
25.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5)
26.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6)

27. 필수수산물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3)
2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0)
2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0)
3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19)
31.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0)
3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1)
3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5)
3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6)
3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2)
3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5)
3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9)
38.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0)
3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6)
40.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9)
41.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2)
4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0)
43.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4)
4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7)
4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8)
46.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마. 해양경찰청 소관
47.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0시11분)

○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5항까지 44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6항 및 제47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4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내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법률안 및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6항 및 47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지출 건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2024회계연도 예산을 적기에 차질 없이 집행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정, 농업의 미래 전략 산업화, 농촌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회계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7개 회계와 농지관리기금 등 7개 기금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계와 기금을 합한 세입·수입 계획 총액은 30조 2101억 원이었으나 총수납액은 27조 8827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및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계 및 기금의 세출·지출 편성액 35조 775억 원에 2023회계연도 이월액 6815억 원 등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5조 8879억 원이었으며 이 중 31조 982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심의하여 주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은 대부분 계획대로 집행하였으나 농어촌특별세 수납구조에 따른 자금 부족과 SOC 사업 등 일부 사업의 지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일부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농지기금 예탁금 축소 등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와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 등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등에서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예비비 702억 원을 편성하여 국민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 등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집행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세입세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불용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 사전이행, 집행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 모두는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당면한 현안들을 국회·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해결하여 보다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0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6항 해양수산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24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촌계의 목적, 사업, 설립인가 등 중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어촌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구별 수협 대의원의 겸직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부문은 1조 9477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9002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예산현액 7조 6899억 원 중 7조 1459억 원을 집행했으며 2002억 원은 이월하고 3439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발전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수산발전기금은 총 8785억 원을 조성하여 융자사업과 경상사업에 6302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483억 원은 여유자금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2024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안전이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6항 농촌진흥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진흥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기후적응형 신식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로 식량자급률 향상 및 수급 안정에 기여하였고 스마트농업 핵심기술의 확산과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발농업기계

화, 병해충 사전예찰 방제 등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K-농업기술을 활용한 농식품 수출 확대에도 힘썼습니다.

올해도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와 지방소멸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다양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육종 등 첨단과학기술 융복합을 통한 기술 개발과 현장 확산으로 농업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 청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결산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53억 원이었으며 수납액은 157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974억 원으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55억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조 1029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1조 642억 원을 집행하였고 109억 원은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78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은 공사 지연 등으로 발생하였고 불용은 비목별 집행잔액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예산을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산림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6항 산림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평소 산림행정과 임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산림청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가 산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그동안 잘해 왔던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선이나 혁신이 필요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바꿔 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산림청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특히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지역 임업인 지원과 복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산림 부문 세입세출 결산 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조 1565억 원으로 수납액은 예산액보다 386억 원이 적은 1조 117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에서는 순계 기준으로 일반회계 등 4개 회계의 세출예산액은 2조 6126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678억 원과 초과지출 8억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2조 6812억입니다. 이 중 2조 5689억 원을 지출하였고 744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78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은 일부 사업의 공사 기간 부족과 계약체결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불용은 대부분 사업별 집행잔액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림청 소관 2024년도 예산은 대부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였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일부 항목에서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을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앞으로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산림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산림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진 해양경찰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6항 해양경찰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국민의 안전과 해양경찰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해양경찰은 국민 안전 확보와 국가 해양안보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강인하고 반듯한 해양경찰’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다에서 보다 안전하게 생업을 영위하고 레저 등 해양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지난 회계연도에 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신 예산으로 해양주권 수호 그리고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하여 3000t급 대형 함정 1척을 포함해서 총 11척의 함정을 신규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안해역 해양질서 유지를 위해 2023년 서해권에 이어 전년도에는 제주 광역 VTS를 신규 개통하여 연안해상교통안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 등 민생침해 범죄 차단 및 예방을 위해 휴대용 마약 탐지장비 등 감식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 투자를 통해 지난해 약 2만 1000명의 해상조난자를 구조하였고 758건의 마약범죄를 포함한 총 4만 9000여 건의 해양범죄를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양경찰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정부 재정 운용을 통해 해양에서의 인명사고를 줄이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양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182억 원 중 157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600만 원, 미수납액은 25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조 9162억 원이며 이 중 1조 8971억 원을 집행하였고 102억 원은 이월, 88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난해 해양경찰청은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납기 지연 등에 따른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은 불용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일부 항목에서 이·전용이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이·전용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운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정부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이나 고견은 예산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국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

먼저 이정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 14건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및 제47항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식품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논농사에 비해 기계화율이 낮은 밭농업 기계화 및 여성친화형 농업기계에 대한 연구과제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R&D 성과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농업 분야의 전략적인 R&D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둘째,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농식품부는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2024년 기준으로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이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농약 사용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이행실적이 부진한 편입니다. 따라서 제5차 계획의 저조한 실적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셋째,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년식품 창업패키지 사업은 유사한 창업 지원 사업인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과 2024년 중복 지원의 소지가 있는 기업이 7개나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복 지원을 방지할 체계를 갖추지 못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넷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농식품부는 선발인원을 확대하고 대출 조건을 개선하는 등 창업자금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정작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정책을 신뢰한 일부 청년농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정책 추진과 예산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촌진흥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품종 지역적응 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농촌진흥청은 해외 로열티 지급 규모가 큰 품목을 로열티 대응 품목으로 지정하여 국산품종의 개발을 통한 로열티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해외 로열티 지급액은 증가하고 국산품종 보급률은 정체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 성과가 미흡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법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15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이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그 체계 및 주요 개념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등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이사 등 임원의 의무 도입 대상인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총회에서 관련 정관 변경사항을 보고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일부 조합에서 임원의 의무 도입에 관한 정관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관 변경의 보고기한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등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7페이지의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월 10일을 한식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여 한식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려는 것으로 한식산업을 진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사명칭의 명절인 한식(寒食)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동일 날짜에 다른 기념일이 다수 지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그 명칭 및 일자 변경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여기구**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44항까지의 18건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해양수산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4년도 신규 사업 중 미집행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사업 중 2024년에 신규로 추진된 사업은 31개 세부사업에 1121억 4000만 원 규모로 이 중 84.5%인 915억 3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신규로 추진된 사업 중 7개 세부사업의 13개 내역사업에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고려를 통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타당성 있는 사업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조속한 사전절차 이행 등을 통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민간보조사업 중 실집행률 50% 미만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에 총 1조 1862억 2800만 원 규모의 60개 세부사업에서 민간보조사업을 실시하여 이 중 96.2%인 1조 1853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피보조기관 실집행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음에도 실집행률이 50% 미만으로 나타난 사업은 연근해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 등 4개 사업이었으며 이 중 연근해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 사업과 물류기업 유치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피보조기관에 따라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민간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보조금법령에 따른 집행 절차를 준수하고 대규모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업 집행 관리 및 이월 방지 등에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연간 어업경영비 및 어가 평균 부채의 지속적 증가로 어업인의 경영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업 경영에 필수적인 에너지 및 수산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제정안은 타당성은 있으나 정부 지원액 규모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추계 자료 확보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해양수산부가 기추진 중인 예산 사

업과의 관계 및 필수농자재에 관한 유사 법률안의 심사경과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촌계 관련 규정들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으로써 어촌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재 지구별 수협 조합장으로 되어 있는 어촌계 관리감독권자를 설립인가권자와 동일하게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어촌계의 구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구역 설정·변경의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하고 어촌계 사업에 대해서는 그 목적을 고려하여 사업 범위를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수산사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안전한 수산사료의 생산·공급을 보장하고 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수산사료의 관리·지원 주체를 현행 사료관리법에 따른 농림축산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법률 간 충돌 가능성이나 기본계획과 개별 규정과의 체계적 정합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개별 법률안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충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6항과 의사일정 제45항, 이상 12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46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먼저 산림청 소관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 4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임도를 확충하고 유지·관리함으로써 국산목재 공급 기반을 제공하고 산불 진화 등 산림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24년도 임도 전체 계약 건 중 87.3%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고 계약 중 80.8%는 산림조합과 계약하면서 수의계약 비중은 97.8%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과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었는바 산림청은 향후 임도 계약에 있어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도록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비대테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드론 운용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 조난선박 수색·구조, 해양오염 예찰 등

다목적 임무를 위해 드론을 도입·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해양경찰청은 총 77대를 현장에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해양상황인식체계와 연동되지 못하고 임무 유형별 표준화된 운용 절차가 부재하여 현장 대응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해양경찰청은 정보 수집 항목과 형식을 정형화하고 임무별 운용 절차와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조종사 부담 완화 및 관리 개선을 통해 드론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방역, 산림청,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 12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사육제한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도축장 및 부하장 소유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사육제한에 따른 연쇄 피해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사육제한과 연관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여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계획에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산림재난방지 교육 이수율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산림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기 중 2회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특성과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연구개발 지원, 창업·투자 촉진, 해외 시장 개척 등 산업 전주기를 포괄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산업 진흥 기능을 전담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향후 심사 과정에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범위와 적용 대상에 대하여 관련 업계와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아래,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를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가 아닌 실제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정보 취약계층 등 제도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임업인에 대해서도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15페이지 상단입니다.

또한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친환경 임산물 생산 등의 공익기능 증진활동을 수행하는 임업인에 대해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익활동에 대한 임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 있는 산림경영을 촉진하여 다양한 공익기능을 실현하고 산림경영을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상 2건의 개정안에 따른 임업직불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예산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어기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 및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대체토론을 일괄하여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효율적인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결산 관련 서면질의 자료는 오늘 전체회의 중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시 질의한 사항 및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주요한 사항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자료에 포함될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 질의는 12시까지 하기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정확히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정희용 위원** 의사진행발언 줌……

○**위원장 어기구** 예, 의사진행발언이요.

○**정희용 위원** 자료제출 요구 겸 의사진행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지금 공동기자회견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팩트 시트(fact sheet)가 작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농림부에서는 팩트 시트 작성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한 게 있으신지, 만약에 작성되고 있다면 우리 농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께서 이 자리에서 뭐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자료는 말씀하신 대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고요. 팩트 시트에 관한 사항은 양국이 협상한 결과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용 위원** 발표가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지금 모르시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것도 아마 포함해서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관련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저도 같은 관련 사항인데요. 확인 차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수산 분야의 추가 개방은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

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윤준병 위원 그것은 맞는 내용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윤준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행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김선교 위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결산 질의에 앞서서 워낙 중요한 현안이라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개방 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됐다고 언급했고 레빗 대변인도 쌀과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역사적 개방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8월 1일 법사위에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정치적인 수사라고 판단하고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 추가 개방은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대통령실이나 유관 부처 장관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듣고 쌀과 소고기에 대한 추가 개방이 없다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당시 대통령실의 브리핑만 듣고 추가 개방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브리핑 결과를 이미 위원님들 보셨으니까 알고 계실 거고요. 사전에 저희도 정부 안에서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선교 위원 오늘 새벽이지요?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나 대통령실 실무자에게 쌀과 소고기에 대한 추가 개방 문제가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 이런 다른 말로 국민과, 특히 농민분들께서 오해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매듭지어 달라는 건의를 하신 적이 있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그런 건의를 특별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이야기를 믿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선교 위원 한미 정상회담 후의 대통령실 브리핑을 보면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한국과 미국 간의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 무엇이 진실인지 명확히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 오히려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김선교 위원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으로 가는 기내에서 쌀과 소고기 개방은 없다고 밝혔고 정상회담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 합의를 문제 제기했지만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하고 있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아는 바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농산물에 대해서

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선교 위원** 정상회담 후에 별도의 실무회담에서 쌀과 소고기의 개방 같은 농산물 추가 개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 부분은 아마 지금 현지에서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교 위원** 그러면 대통령 언급대로 추가 개방 없을 것이라고 장관님도 확언할 수 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장관님,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 문제, 검역 완화 문제는 우리의 식량주권과 국민 먹거리의 안전 문제입니다.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우리 농민들이 많은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실무회담에서도 면밀히 살피고 국민들 안심할 수 있도록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정부 내에서 우리 농업의 민감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7월 말에 우리 협상단이 가서 협의하고 온 내용 그대로 소고기와 쌀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아무 변화 없는 사항입니다.

○**김선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이렇게 명확히 앞으로도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제 결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장관님, 2025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얼마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18조 7000억 규모입니다.

○**김선교 위원** 예, 7400억인데 작년보다 조금 늘었지요, 2024년도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직 예상치지만 지금 불용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대충? 현황이, 4/4분기가 내일모레인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정확히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님.

○**김선교 위원** 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명시이월이 얼마인지 사고이월이 얼마인지 그래도 농림부에서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왜냐하면 좀 쓸 때 쓰자 이 뜻으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김선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통상 협상에 관련된 우려는 충분히 전달드렸으니까 장관님들 잘 대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난해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송미령 장관님, 전재수 장관님도 함께 좀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지금 농어가에서 경영비 중에서 사실 면세유 관련된, 유가 인상에 따른 부담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전기와 결국은 유가인데……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니까 작년에 시설농가 면세유 보조금 사업 관련해 가지고 면세유 보조금 사업이 두 부처 다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불용됐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렇게 세세적인 내용, 세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불용된 것 알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불용됐는데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 기준가격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호선 위원 기준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일 높았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 가지고 유가가 가장 높았던 시점이 22년 5월이거든요. 그 달 평균가격의 88.5%를 기준가격으로 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가격 자체가 등유가 1113원, 중유가 1116원 또 어업인 같은 경우 고유황경유가 107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기준가격 자체가 높다 보니까 기준가격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기준가격을 어디서 정한 거지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법적 근거는 아니고……

○임호선 위원 없잖아요? 부처 간 협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호선 위원 근거가 뭐예요? 없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임호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농업인들에게 또 어업인들에게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면세유 지원을, 유가 지원을 못 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예산을 세워 놓고, 이게 뭐 큰돈이 아닌 것 같지만 지금 50%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농업인·어업인들을 지원해 줘야 될 예산입니다. 저는 이것 보면서, 지난 추경 때도 이 유가 지원해 줘야 된다고 목청 높여서 주장을 했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랑 제도는 조금 다릅니다. 일본 제도를 파악해 보니까 일본은 7년 평균 중에서 가장 높았던 해와 가장 낮았던 해를 제외하고 5년 평균을 내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한번 5년 평균을 내 봤어요. 5년 평균을 냈더니, 이게 등유를 기

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1167원이 기준가격인데 5년 평균 내니까 979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터당 93원, 94원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거지요. 왜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 지원도 70%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애써서 세워 놓은 것을 전액 불용 처리를 했는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불용됐다는 이유로 금년 예산에 아예 세우지를 않았어요. 왜? 다 전액 불용 처리를 했는데 예산 세워 주면 뭐 하나.

부처에서 이렇게 일 처리를 했다고 하면 우리 농업인·어업인들이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한시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켜진 거라서……

○**임호선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요. 물론 그렇긴 한데……

보세요. 농가의 경영비 지출 +300, 부채 증가 840, 이게 지난 윤석열 정부 동안에 벌어진 우리 농가의 실태거든요. 어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경영비 지출 250만 원 증가, 부채 650만 원 증가. 그런데 그 기름값 몇 푼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되지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이 있으면 또 다음 전기값도 제가 말씀을 드릴 참인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불용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 그리고 이 기준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법적 근거도 없어요.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규칙도 아니예요. 그냥 기재부에서 그렇게 세웠는데 그것을 충족 못 했다는 이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것은 맞습니다.

○**임호선 위원** 뒤에 공직자 분들 앉아 계신데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세워진 예산을 집행 못 했다, 이것 공직자로서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위원님, 제 생각에는 필수농자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가격을 내는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말하자면 예산이 어느 순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임호선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시고 말씀 주셔야 돼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반드시 지원하기 위해서, 집행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실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면세유 보조금이 지금 불용돼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장관님, 이것 한시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상설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장님, 그래서 우리가 필수농자재 기준들을 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요. 그래서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그 논의를 좀, 어떤 것까지 어떤 범위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그걸 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것을 법률로 만드는 것도 좋은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농민들한테 희망의 떡이 그림의 떡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논의될 필수농자재법 논의 시 적극적으로 농림부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해수부장관님, 취임사에 보니까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전주기 관리를 해서 깨끗한 바다를 우리 미래세대에 넘겨주겠다 그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리고 정책은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소통을 철저히 해야 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두 부분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이런 취지로 또 이런 소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해 주시고 해수부 공무원들도 뒷받침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사진을 한번 띄워 줄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집중호우 때문에 일어났던 해양쓰레기 부분입니다. 여러 언론에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경남만 하더라도 약 5390t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뒤의 포구입니다. 삼천포항, 사천항인데 쓰레기가 밀려와서 지금 어선이 출항을 못 하는, 쓰레기에 갇혀서 출항을 못 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이분들은 사실상 영세 어민들인데 생계가 차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해상쓰레기 때문에.

장관님, 이 부분은 무슨 사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죽방렴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서천호 위원** 죽방렴은 세계 수산문화재로 등재가 돼 있는데 죽방렴 안에 멸치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요. 실상이 이런겁니다.

우리 어민들이 지난 8월 달에 대대적으로 항의 시위를 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의 아주 큰 현안으로 불거져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아마 보고를 받으셔서 아실 텐데 상황이 지금, 오늘 예산 국회입니다만 상황이 워낙 시급하고 또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먼저 질의를 좀 합니다.

장관님, 이게 해상쓰레기라고 하는데 발생 원인을 따져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뉘 집니다.

우선 자체 도시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그다음 두 번째는 각종 그물이라든지 폐어구들을 통해서 양산되는 해상쓰레기 또 하나는 강물을 통해서, 폭우라든지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 그중에서는 이번과 같이 폭우에 댐 방류로 인해서 밀려오는 그런 해양쓰레기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댐 방류로 인해서 생기는 해양쓰레기는 피해가 아주 막심합니다, 단기간에 걸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집중호우 때마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왜 시정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예산이 계속해서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집중호우는 올 것이고, 그러면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매년 이제 똑같은 또는 그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도 이제 환경부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문제를 차관들끼리 모여서 논의를 하던 것을 장관들끼리 논의를 하는 것으로 격상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좀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장관님께서 그런 의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 방향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나서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관리 주체가 지금 부처별로 나뉘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댐은 수자원공사를 관할하는 환경부 또 댐과 바다를 연결하는 하천도 역시 일부는 환경부 일부는 지자체가 돼 있어요. 그러면 또 해양을 관리하는 해양쓰레기 부분은 해수부에서 지금 담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 부분이 그 지역이나 양상에 따라 다르게 나뉘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행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책임회피식 행정으로 진행이 돼 왔다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서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우리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 미국이 또 요구할 거다 하는 우려들이 많았는데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 자체가 거론이 안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윤준병 위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잘 타결됐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농식품부, 해수부, 해양경찰청, 농진청, 산림청 공히 다 아마 동일한 예산 집행 상황일 텐데 지자체를 통해서 지급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연초에 늘 예산집행률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대부분 국고보조사업 집행률을 점검하면 일시에 다 배정을 다 해 줘요. 그러니까 집행률 100%야. 그런데 정작 실제 수혜자에게 도달된 내용은 지자체를 통해서 지자체 분담금이나 이런 걸 가미하고 집행되다 보니까 실 집행률이 엄청나게 낮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중앙부처에서는 집행이 잘됐다고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전 부처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농식품부 보면 국고보조사업 254개 사업인데 80%에 달하는 195개 사업 모두 100% 집행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늘 농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점검하고 추경에라도 좀 반영해서 뒷받침해 줘야 되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 이런 내용들을 늘 하는데 실제 현장에 집행된 내용 보면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오히려 불용이 되거나 반환이 되고, 또 그러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기준 설정을 제대로 해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해수부도 실집행률을 보면 73%예요. 소위 자주 지적되고 있는 내용이 어촌뉴딜사업이 내용인데 어촌뉴딜사업은 어촌의 공간적인 재편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집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재정 당국에서는 이게 사업 실효성이 적다 이렇게 평가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놔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관리를 해서 실제 예산편성된 내용들이 단순히 외형적인 집행률이 아닌 실집행률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꼭 이 부분을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임호선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보조금 이것은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22년도에 있었던 유가 파동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예비비로 썼지만 2024년도에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만들었어요, 2023년도에 편성해서. 그때는 유가 기준이 실제 2022년도에 예비비 쓸 때 기준보다 높았지만 그 내용을 반영해서 농어민들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예산집행이 됐어야지요. 그걸 단순히 예비비 지출 기준만 가지고 안 했다는 것은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준병 위원** 또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단은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는 그 단계까지 예산이 지방비 매칭,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지자체가 예산을 제대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챙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집행이 되려면 행정 절차가 있을 텐데 이런 행정 절차를 사전에 좀 마무리해 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챙기는 것도 하나 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면세유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실은 22년 5월 피크를 찍고 그다음부터 계속 하락하는 추세여서요. 그래서 기준가격이 그렇게 2022년 5월에 맞춰서 88.5%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작동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듯하고요.

○**윤준병 위원** 그것은 양해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한 700원 내지 800원 대에 있었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것이 오른 거지요.

○**윤준병 위원** 유가가 1000원 대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1300원까지 갔다 그래서 88.5% 수준으로 했지만 800원 기준에서 1000원이면 높은 가격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요.

○**윤준병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더 높았던 천백 얼마 여기에까지는 안 됐다 하더라도 1000원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그것을 예산집행을 해 줘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는 애를 썼습니다만 기준가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거기의 88.5%니까, 지금 현재는 1000원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농식품부장관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하고 예산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60일 동안 여수세계섬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전 세계 30개국이 참가해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이런 주제로 열리는데 작년 예산심사 때도 ‘이번 행사의 주무부처가 행안부 이기는 하지만 섬 주민들의 주업이 농사인 만큼 농식품부도 적극 참여해 달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와 관련해서 장관께서는 ‘기존 사업으로 이번 행사를 챙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챙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진짜요? 위원님 말씀 주셔서 저희가 농촌관광 관련된 사업들하고 그다음에 K-푸드 관련된 사업들하고 해서 좀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철현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공약으로 여수시에, 보시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고 또 지난 7월 2차 추경에서도 APEC 정상회의하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범정부적 지원을 적극 지원한다 이런 부대의견이 또 국회에서 통과까지 됐어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남의 일처럼 보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안 하고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내년 정부 예산에 포함된 사업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농촌관광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종류별로 좀 엑스포랑 엮어서 챙길 수 있도록 하고요. K-푸드도 같이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정부 예산에 구체적 사업 내용하고 예산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주철현 위원** 가급적이면 사업을 구체화해서 8월 중으로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해수부장관께도 똑같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해양과 섬을 소관으로 하는 해수부도 이 행사에, 여수세계섬박람회에 국외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물론 현행법상 유인도가 행안부 소관이라서 행안부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행안부가 유인도 관장한다고 하면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게 섬 접근성 문제인데 여객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또 주무 부처가 해수부로 돼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해수부에서도, 내년 예산안을 얼핏 봤더니 기존의 도서지역 관리 예산, 관련 예산, 내항여객선 운임 보조, 연안관리사업 이런 것만 있지 세계섬박람회와 관련된 예산은 지금 전혀 없거든요. 장관님께서 챙기셔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주철현 위원** 섬 주민들의 생활과 교통, 어촌과 어항 재생, 해양환경 관리 또 해양관광 이런 거 다 해수부 소관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래서 여수섬박람회에서 해수부가 국외자가 될 수가 없다. 사실상 거의 공동 주최한다는 이런 자세로 적극 참여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제가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요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래서 세계섬박람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섬과 해양정책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만큼 해수부가 좀 앞장서서 적극 챙겨 주시고, 내년 예산안에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게 장관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의원실로 가급적 이달 중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주철현 위원** 그리고 지난번 보니까 섬과 관련된 정부 관할 부처와 관련해서 유인도도 해수부로 갖고 간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제가 해수부장관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에 섬이 한 3500개가 있는데 이게 유인도였다가 무인도였다가 또 무인도가 유인도가 되고, 데이터도 정확치도 않고 그래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유인도도 해수부가 가져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와서 공부도 해 보고 보고도 들어 보고 이 해관계자들 들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할 단계는 아니고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유인도에 있어서 섬 주민들의 가장 긴요한 사항이 접근성 문제거든요. 천생 여객선과 관련해서 다리가 놓아지게 되면 무료로 다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현재처럼 여객선 타고 다니면 돈을 내고 다녀야 돼요, 그것도 많은 비용을. 이

것은 대중교통 내항여객선도, 대중교통 주무 부처는 또 여객선 관련해서는 해수부로 돼 있는데……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섬 주민들이 접근할 때, 오고 갈 때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로서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잘 편성해서 지원하고 그러고 있는데 국가의 지원은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전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객선도 몇 시 되면 몇 번 버스가 몇 분 간격으로 온다 이 정도 수준의 대중교통적 관점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여객선들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다 보니까 서비스 수준도 상당히 낮고,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서 국가보조항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대중교통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또 법제라든지 예산도 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어기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만희 위원 허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 아침 회의 시작 전에 전재수 장관에게 요구한 자료 요구는 다른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번 부산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867억 원의 예비비가 책정이 됐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따라서 867억이 어디에 쓰여지는가, 청사 공사 비용으로는 얼마가 들어가고 직원들의 이주지원비는 그러면 얼마나 들어가는가, 거주지원비들은 어떻게…… 그 내역들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 기능을 잘 알고 계시는 장관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분 말씀에 따르면 우리 행정부에서, 해수부에서 예비비 사용하면 그게 내년 2월 달까지 기재부에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또 대통령한테 승인받아서 명세서 만들어 가지고 감사원에 또 제출해 가지고 내년 5월 31일까지 가서 국회에 제출하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5월 31일 날 제출하고 나면 알아보세요 이런 취지로 지금 답변을 했던 말이지요.

장관님, 제가 이해한 그 말이 맞습니까?

장관님이 국회의원 출신이시고, 또 본인의 관장되는 사무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하고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장관님께서도 아마 그런 스탠스로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는 너 5월 31일 돼 가지고 국회에 제출하면 그때 알아봐라 이런 식의 답변이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절차와 규정이 그렇다라는 말씀이고……

○이만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아니아니요……

○이만희 위원 5월 31일까지라는 그 제한 이유는 국회에 보고하는 하나의 제출 마감기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출 마감기일 지나서 네가 알아봐라 하는 그런 차원의 답변은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법의 정신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오전부터……

○이만희 위원 제가 무슨 국가 기밀을 물었습니까? 867억 사용하면 공사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직원들 이주하는 데 이주 비용은 얼마나, 그 상세내역을 요구한 겁니다. 그게 무슨 제가 요구하지 못할 사항입니까?

○위원장 어기구 아니, 이만희 위원님, 잠깐만요.

○이만희 위원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항은 해수부는 기본적으로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하나의 정책적으로 정하셨잖아요. 좋습니다. 정권을 잡으셨으니까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신청사를 다시 짓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어기구 이만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저한테 해 주시고요.

○이만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다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절차와 규정이 그렇게 돼 있더라도 대략적으로 이만희 위원님이 요청하시는 자료는 설명을 좀 해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이만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뜻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 아니라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때가 되면 다 공개가 되니까 그때 알아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국가재정법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재부가 총괄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5월 달에 국회에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 과정에서 때가 되면 공개가 되니까 그때 확인하시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장관님과, 두 분이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 의견은 여기까지 하시지요, 이만희 위원님.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전달이 됐고요. 장관님과, 두 분이 좀 상의해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소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하시지요.

○조승환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어기구 예, 의사진행발언.

○조승환 위원 지금 보도에 의하면 867억이 국무회의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의 공개, 비공개 취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 해수부 이전과 관련된 예비비 비공개 취지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867억의 예산상, 집행상이 아니라 예산상으로 예비비를 요청하고, 어디에 어떻게 요청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그 정도 하시고요.

장관님,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주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한말씀만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만하시지요, 이제. 충분히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장관님,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숨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설명해 주셔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자료제출에 좀 응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전 장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엇그저께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이만희 위원 또 공동 언론 발표문도 채택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장관으로서 한말씀 보태실 건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어떤 정권이든 간에 정권은 계속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전 정부의 일본과 관련된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기조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조금 더 우호 증진을 늘려 나가고 양국의 이익이 되는 부분들을 함께 찾아 나가자 그런 취지로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이 된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만희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재수 장관님은 해수부장관이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동 발표문을 보면 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과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입장 정리가 어떠냐. 앞으로 더 조심,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어쨌든 더 앞으로도 방류와 관련해서는 사고가 없도록 일본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 정도, 아니면 관계국 간에 협의하겠다는 정도의 멘트들은 포함돼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고.

더군다나 전 장관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당시에 야당 의원으로서 얼마나 날을 세운 말씀도 하시고 앞에 활약을 많이 하셨습니까?

장관님,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몇 차 방류한 지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연말까지 전체 여섯 차례 정도 방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이만희 위원 장관 되고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졌습니까?

지금까지 14차 방류가 완료가 됐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이만희 위원 계속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면, 23년도 8월부터 방류가 시작이 됐는데 어느 정도 방류가 됐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전체의 6% 정도 방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계획의……

○이만희 위원 지금까지 11만t 정도가 방류가 됐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전체 6% 정도 될 겁니다.

○이만희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본인이 야당 시절에 했던 주장과 주의가 장관이 되고 여당이 됐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다른 스탠스처럼 보이는 것,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한일 위안부 관련해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가서서 고생하고 계시지만, 뭐라고 하셨느냐면 민주당 대표 시절에 강제징용 해법에 관련해 가지고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의 최대 치욕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장관님이 무슨 말씀 했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제가요?

○이만희 위원 예.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제가요?

○이만희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데 것은 우리가 ‘과학적 기반에 두고’ 이렇게 말하면 ‘과학적 맹신에서 너희들 좀 벗어나라. 체르노빌 한번 보라. 과학에 100%가 어딴냐’ 그러면서 저희들을 추궁하고 정부를 추궁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장관님 되셨으니까 좀 더, 특히나 해수부장관이시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이만희 위원 장관님, 우리가 이번에 양곡법 통과시키면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사전적으로 한다는 것이 눈에 타작물 재배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타작물 재배.

○이만희 위원 그것 지금 줄인다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줄인다는 얘기……

○이만희 위원 축소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희 위원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타작물 재배……

○이만희 위원 제가 언론이나 이런 것을 봐서…… 콩 재배면적, 콩에 대한 수급이 과잉

생산이 우려돼서 줄이겠다는 의도가 있고 가루쌀 등에 대비해 가지고도 또 일부 수급 불균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 쌀값 안정을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 타작물 재배사업 추진 좀 잘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타작물 재배는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논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확대되면 콩이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생산자들과 좀 협의해서 소비를 촉진하는 방법도 취하면서 수급 조절을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저는 해양수산부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유령어업이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유령어업?

○**송옥주 위원** 예,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는데 바닷속에 폐어구가 너무 많아 가지고 해양생물이 걸려서 죽거나 먹어서 죽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폐어구로 인해서 우리나라 어업 생산금액의 약 10%인 4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최근 10년간에 해양선박 부유물 감감사고가 88% 증가를 했는데 이 감감사고 41%의 주원인이 폐어구입니다. 또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저희가 살펴봤더니 17만 6000t인데 해상에서 기인한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5만 8000t이고요 폐어구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 3만 8000t이에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요?

장관님, 해수부에서 2024년부터 한 사업 중에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아마 이런 목적에서 이 사업이 시행된 것 같아요. 해양생물 폐사도 막고 선박사고도 막고 또 미세플라스틱 같은 폐기물 처리하는, 회수하는 차원에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작년에 처음 이 사업이 시행됐는데 집행률도 좀 낮기도 하고 어민들로부터의 불만도 많기도 하고 제도상의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은 있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일단은 이게 어민들이 보시기에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반납장소도 사실은 180개 정도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가동률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반납장소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게 해양쓰레기 문제, 해양폐기물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한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예, 잘 파악하신 것 같고요.

또 보니까 사업 예산이, 오늘은 결산 관련된 질의를 하는 부분이어서 지난해의 예산을 보니까 9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이 한 65.5% 정도에 그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예산결산과 관련된 부분들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인 것 같습니다. 폐어구 회수·관리를 위해서 지자체 보조금을 거의 20억 원 가까이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 2억 4700만 원밖에 사용이 되지 않아서 지금 12%밖에 집행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민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어민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제대로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해수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보니까 보통 어구나 부표가 3년 정도 사용을 하는데 이 사업이…… 이 사업 1년 차인 거지요, 2024년은? 그런데 1년 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폐어구에 대한 회수 관련 사업비를 19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너무 과다 계상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이 있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됐는지는 파악 안 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지금 한 107억 원 정도 내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더 많이 확대가 된 부분이네요.

아시겠지만 이게 2024년 1월에는 통발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내년에는 자망, 부표, 플라스틱 장어통발 해서 추가로다가 이 사업 항목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대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저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정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어민들과 또 해수부라든지 해양쓰레기 취합하거나 수거하는 데에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장관님께서 좀 더 신경써 주시고 관심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같은 경우도 반납장소를 잘 운영해야 되는데 한 군데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한 네 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집행률도 높이고 청정한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예.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장관님, 6월 25일이 무슨 날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6·25 전쟁……

○이병진 위원 그렇지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금년 6월 25일은 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전체회의에서 장관님한테 가공용 쌀 시장공급대책을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업체와 소통하며 정부양곡 추가 공급을 검토하겠다’, 이 워딩 자체 회의록 한번 보시면 나올 거예요.

어떻게, 검토만 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지금 이제 가공업체들과 우리 공무원들과 만나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진 위원 추석 전에 뭔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이병진 위원 지난주 KBS 보도, 가공용 쌀 공급 축소 기사가 크게 보도가 됐는데 보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희는 사실은 우리 시중에 있는 민간에서 유통되는 쌀을 가공업체에서 써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챙겨 보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래요. 추석이 연중 최대 성수기인데 10월 이후에 배정량이 다 소진된다면 문제가 커지는 것 같아요. 공장이 또 가동…… 될 수 있다고도 하네요.

지난주에 세미나도 있었잖아요,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때 우리 국장님 오셨는데, 그렇지요? 충분히 보고드렸습니까? 제가 축사만 하고 와서 그 이후에는 솔직히 모릅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매출액도 한 14.4% 감소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고 4000억 손실도 예상된다, 모든 게 다 추단이지요. 그러나 그 근처에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것…… 일자리도 막 4800명, 132개 업체가 수출도 못 할 경우에 300억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추가 공급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장관님, 해수부 이전 잘 되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저희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러면 부산 이전하면서 900여 명이 다 이사 갑니까? 또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일단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요.

○이병진 위원 여러 가지,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퇴직하는 인원이, 사실 매년 해수부 보면 의원면직을 통해서 퇴직하는 인원들이 적지 않아요.

PPT 하나 볼까요? 아직 안 됐습니까?

2022년도에는 77명, 2023년도에는 78명, 2024년도에는 95명. 그런데 대부분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많이 떠나십니다. 그분들이 한 85% 차지합니다.

손발이 오늘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PPT가 없어 가지고, 제가 돌아가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그래요. 그것을 보면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텐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의원면직이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입부 하기 전에 가졌던 생각과 실제 입부 하고 난 뒤 일을 하는 그 과정에 기대했던 것과 상당히, 실망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이병진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대부분 본부 행정 중심의 부서가 아닌 경우도 많고 그

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1억 6400만 원이 불용 처리됐어요, 인건비만 해도.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134명이 부족합니다, 해수부 현원이. 우리 평택해양수산청도 현원이 3명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수부를 성공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력유출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이어서 보충질의 때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위원장 어기구 보충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해양수산부장관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 2024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예산이 18개 사업 7319억 원이고 집행액이 5361억 원입니다. 물론 이 사업내역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검사 비용이나 이런 것보다도 소비 안정이나 또 수매 지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우리 바닷물에 대한 검사는 몇 건이나 한지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지금 해수부하고 원안위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한 250군데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예, 한 8700건. 그다음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한 3만 2000건 그다음에 천일염 검사는 6000건 해서 이것은 예산집행률도 대단히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지금 현재는 우리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단 한 건의 기준치 초과나 적합하지 않은 게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없습니다.

○조승환 위원 천일염도 마찬가지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만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취임 이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은 한 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이자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다. 기존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실천하고 미래지향적 상생협력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과거사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으로 나는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에 대한 어떤 의사표현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핵오염수라고 명칭 하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서 최고위원 시절 ‘핵오염수 마셔 보고 가족들에게 권유하기 바란다’ 이런 발언,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패악이다’,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과 태평양 연안국

에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우리 수산업은 다 망한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지금……

○**문대림 위원** 재앙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조승환 위원** 맞습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르지요.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아까 이만희 위원님도…… 그러면 최소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계속해서 관리하에 제대로 해라라는 발언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내가 야당일 때는 이렇게 했는데 여당이 되고 보니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위원님,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정상끼리 협상을 하려면 여러 단계의 실무협의를 거치게 되고 의제 설정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상회담이 끝이 나게 되면 결국은 양국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그런 정상회담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협의 과정에서 한일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테고 그 결과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합의문이라든지 이런 게 발표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문제를 우리가 먼저……

○**조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내로남불이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 분들 다 계십니다마는 저는 후쿠시마 방류 시 해양수산부장관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적은 꼭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해수부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까지는 잘못됐다, 그 당시에,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제가 해수부장관이 되기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 방송에 나가 가지고 주로 드렸던 말씀이 체르노빌 말씀을 아마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모든 문제를 인간의 과학기술이 다 통제할 수 있다고는 지금도 생각지 않습니다. 불충분한 부분이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빈틈없이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고 있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한일 관계에서 관리하도록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안전한 우리 바다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전종덕 위원** 25일 자로 양곡 방출 3만t 대여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출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실제 쌀이 부족하다 그리고 양이 미미하다 그리고 신곡으로 돌려받으니깐 오히려 이득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굉장히 오판이다, 잘못 생각하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왜냐하면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줘서 쌀값 억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느

나 하면 ‘쌀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정부가 방출하네. 아, 정부가 생각하는 가격이 이 정도 가격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억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23년하고 비교해 봐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지금 좀 더 올라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쌀값 회복세가 보이니까 정부가 정부미를 풀어서, 특히나 수확기에 유례없이 풀어 가지고 쌀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 농민들이 불신하고 또 불안한 마음으로 농정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했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장관님께서도 올해 쌀값 걱정선이 지금 방출 시기의 금액인 21만 원 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가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전종덕 위원 그러면 정부의 내부 목표가격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들이…… 그런데 올해는 하여튼 쌀값이 좋을 겁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산지유통업체에서는 원료곡이 부족하다라는 호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종덕 위원 장관님, 작년에도 계속 물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아니…… 위원님, 그 이야기는 좀 들어 주세요.

사실은 저희가 매 순마다 쌀값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발표 한 다음에도 쌀값은 더 올랐습니다, 위원님.

○전종덕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그 부족분을 저희 나름대로는 공매를 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우리 쌀값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종덕 위원 그 방식도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방식이요?

○전종덕 위원 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공매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대여 방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 유통업체에 대여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전종덕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적절 시그널을 준다는 게 뭐냐 하면 작년에 쌀값 폭락했을 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쌀값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개입해서 기준을 뒤야 된다 이런 요구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통업체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하면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업체는 이제 그렇게 하겠지요. 쌀을 안 사겠지요. 왜냐하면 쌀이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면,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정부에서 방출할 거고 그러면 기다렸다가

쌀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때 사들이겠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유통업체 입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족한 양, 3만t이라는 게 양곡 연도 시작할 때까지 부족한 양만……

○**전종덕 위원** 수확기에 쌀값이 오르면 그때 안 샀다가 정부양곡을 빌려서 팔고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이렇게 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할 수가……

○**전종덕 위원** 그리고 또 부족하면 정부양곡을 풀라고 요구하고 이러는 것이 반복될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게 아니……

○**전종덕 위원** 이러면 결국은 유통업자를 위해서, 유통업자한테 이득을 주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이 펼쳐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력을 가져야 되는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력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통업자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방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쌀값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정부의 시장 개입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농민들한테도 불신을 주는 행정이 되어서 이게 결코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고 이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그러면 원료곡이 부족한데 그것을 어떻게, 어떤 정책으로 할 수 있습니까? 공매를 해 버립니까, 그러면?

○**전종덕 위원** 쌀 가격이 계속 떨어져도 그러면 목표가격도 없이 계속 방치하시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수급 조절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원료곡이 없으니까 신곡 나오기 전에, 실은 수요는 더 많았습니다만 저희가 3만t으로 한정해서……

○**전종덕 위원** 그러면 그동안 계속…… 원료곡 말씀하셨는데 계속 생산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던 정책을 다시 재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지금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전종덕 위원** 뭐가 다른 얘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현재 수확기를 앞두고 민간에 쌀이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창고에 쌓아 놓은 쌀 중에서 원래는 공매를 해야 하지만……

○**전종덕 위원** 지금 농협 RPC 재고는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것도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평년보다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일단 비축해 놓은 것을 공급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요. 지금 비축한 것을 대여 방식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위원님. 방출이라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쌀값은 계속 이렇게 방출 방식으로, 쌀값이 올라가면 억제하고 올라가면 억제하고 그런 정책 계속 펼치실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아니요. 지금은 특수한 시기인 겁니다, 위원님. 지금 산지유통업체가 아예 원료곡이 없는……

○위원장 어기구 자, 이제 마무리하시고요. 보충질의 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아니, 한번 이렇게 정책을 펴면 부정적 시그널이 이렇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전혀 다릅니다.

○전종덕 위원 뭐가 달라요, 지금?

○위원장 어기구 전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는 강명구 위원님까지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문금주 위원입니다.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문금주 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농림부에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권유를 드립니다.

국회에서 의결한 각종 법률 지켜야 되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럼요.

○문금주 위원 여러분들이 거기에 근거해서 만든 시행령, 그게 대통령령이든 부령이든 지침이든 저는 가급적 다 준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럼요.

○문금주 위원 당연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농해수위 활동을 작년부터 하면서 이렇게 보면, 모르겠어요. 장관님은 그러시진 않을 텐데 공직자들께서, 실무 선에서 법령 등에 대한 준수 의무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좀 철저하게…… 이게 상당히 기본이거든요.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본 법령들, 각종 법령들 준수하고 과거 사례, 선진 사례 또는 연구 자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이 나오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공청회도 하면서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앞으로 그게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일례로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그런 지적을 했잖아요. 양곡 생산량·수요량 추정 방식을 변경하면서 양곡관리법이랄지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근거하지 않고 이루어졌던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올해 또 이렇게 보니까 예비비 관련해서도 국가재정법도 있고 재정법 시행령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집행지침이라는 것도 있고 거기에 또 농림부가 별도

로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운영규정까지 만들어서 규정을 이렇게 해 놔어요.

그런데 이 지침에 따르면 예비비 등 부족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4년도에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587억 원을 상정하면서 그런 예산집행심의회를 전혀 거치지를 않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안 쓰이고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 이런 각종 규정들, 법령 등은 좀 지키면서, 기본을 철저히 하면서 이런 것들이 수행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각종 규정, 법령 등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농민들이나 국민들한테 농림부에서 얘기하는 기준·원칙들을 준수하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문금주 위원** 그런 측면에서 또 보면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이 전액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앞서 몇몇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이 계셨지만 이것도 내가 봐서는 기본이 부족해서, 기본에 충실하지 않아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사정이야, 핑계 없는 무덤 없겠지요.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꼼꼼하게 여러 가지 예산집행이랄지 정책 개발도 해 주셔서…… 아니, 69억 7200만 원 이것 너무 가까운 돈 아닙니까. 이런 돈이 이렇게 사장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금년 추경에 면세유 또 전기세 관련해서 그렇게 예산 세워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정작 세워진 예산이 사용이 안 된다?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그런 기본에 충실해서 앞으로는 법령 등을 준수하는 노력들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예산집행심의위원회는 주로 예산집행 상황 점검을 할 적에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 예비비는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꼼꼼하게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유 부분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예산을 편성받을 때 그 기준이 딱 있고 기준대로 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같이 논의하셔서 우리가 필수 농자재에 대한 지원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사실 집행하기가 더 수월할 듯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구 위원** 반갑습니다. 경북 구미시를 출신 강명구 위원입니다.

송미령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강명구 위원** 어제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던 것 같아요. 장관님도 그렇게 보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강명구 위원** 제가 정상회담 보면서 느낀 것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가 트럼

프 대통령이 협상에 아주 만족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지난번의 3500억 달러, 별도로 한국 기업이 1500억 달러를 더 투자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정상회담 후에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하다고 보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돈을 하여튼 줬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특검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노란봉투법 얘기고 상법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한국 국내 정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기민하게 생각하고 있다, 민감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에 SNS에 ‘숙청’, ‘혁명’ 이런 단어를 써 가면서 글을 올려서 이게 협상 전략으로만 볼 게 아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생각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블룸버그 통신에서 지적했듯이, ‘지금은 계속해서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하는 포에버 협상의 시대이다’라고 지적했는데 한미 간 협상도 물론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관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관세 협상이 제대로 잘될 거라 생각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저는 저희 농축산물,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강명구 위원** 쌀이나 소고기 추가 개방은 절대 없을 거라 확신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는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로는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걱정되는 게 몇 시간 전에 ‘정상회담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 언급 없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발표했어요. 그런데 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 합의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지난달 합의대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미 간에 약간 말이 달라요.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관세 협상 때도 한국이 농산물을 완전 개방했다는 식으로 SNS에 올렸거든요.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농축산물 전면 개방이라는 것이 과연 트럼프 인식 속에서 없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한미 간에는 HS코드로 1만 1000여 개의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말하자면 개방이 안 된 우리 농산물이 35개 품목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게 99.7% 개방된 수준이라요……

○**강명구 위원** 장관님, 인식을 한번 잘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성격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대통령께서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 가지고 국내 정치 상황이 바뀌면요 손바닥 뒤집듯이 하시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합의를 틀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레버리지 삼아 가지고 또 다른 청구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관님께서도 쌀·소고기 추가 개방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 미국이 과채류 검역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강명구 위원** 그러면 국내 사과농가들은 이삼 년 안에 이제 미국산 사과가 수입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강명구 위원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을 생각하실 때,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농가들은 당장 이게 생존이잖아요. 생존이 급하다 보니까 우리 장관님께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 말잔치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

이삼 년 안에 미국산 사과가 수입되면 우리 사과농가들 다 망할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강명구 위원 대책이 있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역 협상, 절차를 개선한다라는 표현은 지난 7월 말에 이미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건너뛰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검역 절차 개선이라는 게 미국하고 좀 더 의사소통을 더 강화한다라는 차원인 거고,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 검역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과농가를 비롯해서 우리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미국으로부터 농축산물 수입은 가능한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 질의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4시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어기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전종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부미 방출 3만t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원료곡 부족 원인이 감산 정책에 기인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장관께서는 다른 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관련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원료곡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원료곡 재고 현황, 최근 5년 동안 월별 농협이나 민간 포함해 가지고 재고량 현황 자료 주시고요.

쌀 지금 부족한 것이 벼멸구 피해나 고온 현상, 자연재해 때문에 수확량이랑 도정률이 떨어져 가지고, 정부는 3.2% 생산량 감소했다는데 실제로는 10~15% 줄 거라고 현장에서 농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시기에 원료곡 부족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그 근거와 입장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제 질의 과정에서 수확기에 쌀 방출이라든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야기가 오갔는데 정부가 이렇게 수확기에 방출을

결정했을 때는 지금 부정적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 방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게 된 근거와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계속 쌀값이 오를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얼마나 오를 걸로 예상하는지 그런 근거가 있다든지 분석 자료가 있으신다든지 하면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전종덕 위원님 요청한 자료 가능한 한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해경청장님, 고개 드십시오.

해양경찰이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안전과 치안 확보를 위해서 독립된 기관으로서 하루속히 자리 잡아야 되겠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위원님.

○문대림 위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해양경찰청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알고 계시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언론으로 봤습니다.

○문대림 위원 언론으로?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문대림 위원 언론으로 알기 전에 내용을 감지 못 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아닙니다. 오전에 보고받았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양경찰청 비상계엄 가담 정황 확인’ 이런 기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진상 파악을 지시했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지시받은 바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시받은 바 없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언론의 오보입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그 경위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문대림 위원 그렇다면 그 해당 언론사에 이 건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적 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하지 않았습니다.

○문대림 위원 확인도 못 했고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문대림 위원 대통령실에서 해경청장에게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이게 오보입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지시받은 바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시받은 바 없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진상 파악도 안 했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아닙니다. 진상은 제가 언론……

○문대림 위원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지 않습니까, 언론보도가 나기 전까지는?

안성식 조정관이 총기 무장, 수사인력 파견 적극 주장했고요. 계엄사범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해라, 이런 얘기는 들은 바 있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경위를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문대림 위원 아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언론의……

○문대림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그런 취지의 언론…… 언급은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계엄 당일 날 11시 40분경에 해경 간부들이 모여서, 계엄이 선포되자 해경 간부들이 몇몇 청으로 모였고 이 자리에서 안성식이 이런 얘기를 했고 이 건에 대해서 담당 국장은 언성을 높이면서 거부했다 이게 보도가 됐는데 이것도 그러면 사실무근입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사실무근입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그 사항에 대해서……

○문대림 위원 그런 사안이 없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문대림 위원 그런 사안이 없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제가 그때 당시에 국장들하고……

○문대림 위원 계엄 발동돼 가지고 1시간 조금 지난 후에 청 간부들이 모이는 시간대가 있었겠지요. 모이자마자 인력 파견을 얘기하고 총기 무장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해경청 내에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걸 몰랐다고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슈화되는 과정 속에서 대기발령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감찰은 따로 해 봤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그 사항은 제가 직접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국장들한테 확인을 해서……

○문대림 위원 시간 관계상……

감찰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제가……

○문대림 위원 그리고요 청장님, 쪽 보게 되면 저는 해경이 노상원 계엄 수첩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컸다, 국민들이 계엄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령도, 연평도, 실미도로 노상원 수첩에서 언급된 사람들이 끌려갈 때 해경 함정이 이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해경이 계엄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었다. 엄청난 사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께서 감찰 지시도 안 하고 이슈화 되니까 고작 대기발령, 이게 말이 됩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해경에서 ‘회의에서 논의되거나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라는 자료를 보냈는데 이게 자랑입니까? 당연히 논의하고 감찰 지시해야 되지요.

그리고 해경 본연의 역할, 해양주권 수호, 해양안전·해양치안 확보 이것을 위한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 당장 감찰 지시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니까 해경청에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위원님,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했고……

○문대림 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여기 상임위의 위원님과 또 양당 간사실에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언성이 높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담당 국장이 거부했나요, 안 했나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그러나 보고드린 대로 저희 해경청이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가담을 하거나 조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가장 먼저, 그때도 제가 국장들한테 진상을 조사하고 상임위에서 가장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안성식 혼자 벌인 일입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현재까지는 그렇고?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그리고 특검이 바로 수사를 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문대림 위원 특검이 수사한다고 해서 청장 입장에서 감찰 지시도 안 하나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혹시라도 수사에 오염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은 기초 보고만 드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특검에서 놓치고 가면 물어 두고 가는 건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특검에서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수사를 하겠다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희가 수사나 이런 내용을 오염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특검에서 수사하겠다고 한 시점하고 언론에 보도된 시점, 인지한 시점 연관이 어느 정도 돼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가담 의혹에 대해서 청장님은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저희도 언론에서 확인하고 나서 가장 먼저, 제가 그 당시에 중부청장이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국장들한테 그 발언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여기 위원장님실과 양당 간사실에 보고를 드리고 또 대통령실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진상 파악에 대한 지시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 난 이후에 바로 특검에서 조사한다는 것을 언론에서 봤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감찰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조사에 오염이 된다고 판단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가담 의혹 없도록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희용 간사님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예결특위 때문에 임미애 위원님이 왔다 갔다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임미애 위원님 주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5분인가요?

○위원장 어기구 예, 그렇습니다. 5분입니다.

○임미애 위원 감사합니다.

장관님, 며칠 전 신문에 나온 일인데요. 김제에서 농사짓고 있던 32살의 청년이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저희가 충분히 짐작하는 내용인데요. 농사가 좋아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에서 자신의 미래를 찾겠다고 결심한 그 32살의 청년이, 들어왔을 때는 2016년도에 대출을 받았다고 하니까 한 20대 후반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20대 후반에 들어온 이 청년이 2016년도에 후계농으로 선정이 됐고요 2018년도에 청년창업농으로 선정이 되어 자금을 받았습시다, 3억 원을. 그리고 인삼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잘 안 됐습시다. 그래서 결국 3억 중 1억 9000만 원을 매입했던 논을 일부 매각해서 돈을 갚았고요. 그런데 3억 대출이니까 여전히 1억이 넘는 돈이 남아 있었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부터 원금 상환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 재기를 위해서 단기 소득작물인 콩과 밀로 작목을 전환했는데 아시겠지만 작목 전환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타작물로 전환했다가 3년 동안 콩 재배, 논콩 재배하고 나서 이제 와 가지고 좀 할 만하니까 다시 면적 줄여라라고 얘기하는 거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3년 해서 창고에 콩이 쌓여져 있으니까 지금 더 이상 소비는 활로를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거는 생산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 이거는 농림부가 이런 식으로 늘 단기적인 방식으로 농정을 펼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 청년농의 얘기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소득작물인 콩과 밀로 작목 전환했고요. 3만 평가량의, 이게 규모화가 되어야 그래도 좀 생산비가 떨어지니까 농지를 추가로 임차했습시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

는데 잘되지 않았고 결국은, 잘되지 않은 거 왜 잘 안 됐는지 짐작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논에 아니면 다른 작물을 재배했던 땅에 다른 작물 전환하면요 처음에 잘 안 됩니다. 이게 제가 해 보니까 최소 5년은 걸립니다. 논밭이 만들어져야 그 작물이 그래도 농사를 지을 만합니다. 그러니 이것 당연히 안 됐겠지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농약대, 인건비 이런 기본적인 비용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면서 결국 이 친구는 이렇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거는 전적으로 어른들의 잘못이다 그리고 농정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최근에 농림부의 당시 귀농 정책자금과 청년농 창업자금의 대출 조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반복된 입장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변경을, 그러니까 귀농 창업자금에 대해서 다시 조건을 연장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청년농 정책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농림부가 방향을 분명하게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임미애 위원** 후계농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3년 동안 사업 신청하면 대출을 하겠다고 했다면 이거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청년들을 3억, 5억의 빚쟁이로 족쇄를 채워 놓을 가능성이 많은 이런 방식의 정책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청년농 육성을 한다면 저는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의논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18년도에 보니까 후계농 자금이 있고 귀농 자금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후계농 자금에 비해서 귀농 자금이 조건이 좋았습니다.

○**임미애 위원** 조건이 좋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일부 청년들은 본인이 청년농이지만 귀농 자금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 과정은 잘 압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나중에 청년농 자금이 실질적으로 조건이 더 좋게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치기간이 끝나고 갚아야 될 때가 오니까 귀농 자금을 그때 선택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대출금을 5억으로 늘리면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었던 거를 5년 거치 20년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5년 거치 20년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 5억을, 한 해에 5000만 원 갚던 걸 2500만 원 갚아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한 해에 원금 2500만 원 갚는 것 불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그걸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정부

까지 계속 펼쳐 온 청년 정책이라는 게 양적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3만 명 만들게 하고 영농정착지원금도 주고, 말하자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의 돈을 주고 그다음에 경영체로 등록하고 나면 이만큼 대출을 해 줄게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충분히 검증을 해 보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출금을 더럭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청년이 저런 지경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저는 방치가 돼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 들어와서 저희가 청년농 정책에 대해서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적으로, 그분들이 충분한 준비가 돼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자, 그 준비하는 기간을 좀 만들자라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미 지난 정부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들어온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니까요.

○임미애 위원 그건 맞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귀농 정책하고 후계농 자금하고는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 이게 조건이 좋으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청년들 같은 경우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리고 거치기간이 끝나고 이렇게 다가오면 컨설팅을 좀 충분히 해서 이룰테면 조건이 훨씬 좋은 경영회생자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분들이 좀 넘어갈 수 있는 단계를 하나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을 전면적으로 양 중심에서 질적 중심으로 좀 바꾸자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귀농 자금하고 후계농 자금의 이 혼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용도의 자금을 가지고 컨설팅을 통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 드리겠다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농업·농촌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 청년농들한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시간으로 정희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송미령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잠 잘 못 주무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못 잤습니다.

○정희용 위원 왜 못 주무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어저께 정상회담이 있으니까요 혹시 우리 또……

○정희용 위원 혹시 우리 농산물이 들어갈까 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염려가 돼서……

○정희용 위원 장관님도 우리 농민들, 축산인들, 농업인들처럼 혹시라도 우리 농축산물이 또 포함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됐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정희용 위원 물론 우리 정부 발표대로 농축산물, 쌀,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다만

검역 완화, 검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검역 절차 개선.

○**정희용 위원** 검역 절차 개선 그 부분만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까 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상대의 행동을 우리가 알기 어려우니까요.

○**정희용 위원** 협상이니까.

그런데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합의문은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브리핑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팩트 시트 형태로의 공동합의문을 기다렸는데 그 공동합의문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브리핑 현재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공동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기분 좋게 이야기가 잘됐다 이런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내용이 있는 걸로 보면 공동합의문, 팩트 시트 형태의 합의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갔다고 남겨 놓는 게 안심이 된다는 거지요. 계속 여지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농림부에서 작년 12월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 줘 가지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농식품 분야 역량분석’ 이거 보셨지요,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정희용 위원** 여기 보면 이미, 미국의 프로젝트 25 아시지요? 미국 농무부에서 2022년 4월에 발표한 정책보고서인데 이때 이미 농무부의 기본 임무는 미국 농산물시장 접근을 막는 부당한 외국 무역장벽 제거 이렇게 발표가 돼 있고 또 2024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도 보면 ‘한국 농업 부문 조치를 크게 주목한다’ 해서 좀 제한돼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켜 있고, 이미 농림부에서 용역을 해서 이러한 미국의 조치들도 다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갔다고 안 남아 있으니까 또 여전히 불안한 게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팩트 시트에 담길 내용을 준비하셨던 게 있으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들이 준비한 거는 별로 없고요. 협상의 주체는 산업부와 외교부 라인이고 저희는 그렇지 않는다고요.

○**정희용 위원** 상의를 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받을 수 있나 없나,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있었다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없었습니다. 7월 말에 우리 정부에서……

○**정희용 위원** 7월 30일 날 발표된 게 그게 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발표된 것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러면 검역 절차 개선 관련해서 소통을 강화하자는 차원이라고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성장 TF인가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거기서는 US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이, 농민분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검역 절차 개선인데 검역 절차가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우리 국내산 사과나 과채류에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냐. 또 직접적으로 사과다 그러면 사과가 들어오면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채

류에도 연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검역 절차 개선이라는 게 지금 대표적으로는 사과를 비롯해서 개방이 안 된 한 15개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NTE 보고서라는 게 매년 나오는데 거기에는 항상 사과를 비롯해서 여러 우리 과채류에 대해서 빨리 검역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과를, 아시는 것처럼 이게 거의 30년 됐는데 2단계에 아직 머물고 있으니까 상대국으로서는 당연히 우리한테 늘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검역 절차라는 게 8단계로 돼 있고요. 8단계는 우리 혼자 속도를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미국 측이 또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 미국 측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이 과정이라서……

○**정희용 위원** 그러면 그 절차에 따르다 보면 아주 시급하게 걱정해야 할 문제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지만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위원님, 검역 협상에서 우리가 수출을 하는 데 드는 시간……

○**정희용 위원** 장관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미 미국에서는 2022년, 24년 계속해서 우리 비관세 무역장벽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장관님 말씀처럼 소나기는 피했지만 언젠가 닥쳐올 미래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정희용 위원** 이때 우리 농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늘 그게 머릿속에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희용 위원** 막는 게 최선, 안 되면 어떻게 우리 농민들을 도울 거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상황을 경험해 보면 언젠가는 닥칠 일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 산업 등을 비롯해서 우리 과채류 산업의 경쟁력을 미리 제고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준비하는 데, 이따가 더 크게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환으로 저희가 하는 게 사과 과수원 같은 경우에도 빨리 스마트화 하자. 다축형 과원을 비롯해서, 기후변화 대응도 있지만 외국산 농산물에 비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방안 이것들을 우리가 빨리 투자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위원님.

○**정희용 위원** 이걸 결산심사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앞두고 농림부 예산에 많이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서삼석 위원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이 오전에 뭘 여췄는지 잘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 당 지도부가 강릉 가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0만 강릉 시민들이 참 목말라하는 그런 현장에서 국가는 지금까지 뭘 했을까 하는 그런 말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걸 타할 수만은 없겠지만, 그러면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장관께서도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농림부가 대처해야 할 사안들이 있으면 기민하게 대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결산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말씀 더 드리면 이렇듯 이상기온에 대처하는 정부 추진 사업들이 집행 과정에서 성과가 좀 미흡하다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연장선상에서 가뭄 우려지역 용수개발사업을 보니까 24년 집행률이 35%예요. 세수 부족으로도 그런 것 같고 또 12월에 재정이 교부금이 돼서 공사가 좀 지연됐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위원님.

○서삼석 위원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살펴 보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거고.

또 적잖은 농림부 예산 중에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이 마을 선정하는 게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불용한 액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삼석 위원 이런 것들은 해당 공직자들이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20만 강릉 시민들의 식수난이 좀 더 커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서삼석 위원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13일 국민주권정부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농식품부 4개, 해수부 3개 정도로 큰 틀에서 과제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두 분 장관님 다 이해하고 계신 사항일 텐데 저희 의원실에서 나름 분석을 해 보니까 농업 분야, 해양수산 분야, 임업 분야에서 공히 대통령이 주창하시거나 공약으로 낸 것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더러 드러났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두 분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저희는 공약에 저희가 들어간 것 다 파악을 해 봤는데 국정과제에 빠짐없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윤준병 위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서삼석 위원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 방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농촌지역 식품 사각지대 해소 및 GMO 완전표시제 도입 관련된 것, 푸드테크·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등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 봤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다 들어갔습니다, 위원님.

○서삼석 위원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다 챙겼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해수부 경우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저희도 크게 K-해양강국하고 그다음에 수산업 혁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청정하고 안전한 바다 해서 대략적으로 저희 부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은 반영이 다 됐습니다.

○서삼석 위원 해수부 경우는 이상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장비, 대응 연구사업 확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고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습니다. 수산업 혁신 분야로 해서 큰 틀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서삼석 위원 안 됐다고 분석을 해 봤는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도 한말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장관님들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 추가 개방 막아 주셔서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52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 중이더라고요. 지금 한-에콰도르와의 FTA라고 하는 SECA가 곧 발효될 예정이잖아요, SECA?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 어기구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 국가들과 FTA를 다 체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재 FTA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 FTA 농어업법에 따라 기금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설치돼 있는데 하나는 FTA 이행기금이고 잘 아시지만 또 하나는 농어촌상생기금 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들 지난 5년간 수지차 현황을 보니까 계속 적자예요. 지난해에도 916억 원 적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장관님, 앞으로 FTA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복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FTA 이행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26년에 종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또 SECA처럼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면밀히 챙겨서 필요하다면……

○위원장 어기구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좀 추가해서……

○위원장 어기구 이게 반드시 필요하지요. 보니까 폐업지원제 이것은 벌써 21년에 종료가 됐고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피해보전직불제도는 내년에도 종료 예정인데, 화훼농가가 아까 저한테 잠깐 다녀갔어요. 다녀갔는데 화훼농가들이 엄청 어렵잖아요? 수입산 꽃도 그렇고 조화 등등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할 수 있도

록 해 달라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분들 이야기로는 SECA가 발효가 되면 화훼농가한테 치명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화훼농가는 그동안 FTA로 인한 피해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보전직불제마저 종료가 되면 FTA로 피해 입은 농가들을 위한 대책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농림식품부가 잘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제가 한말씀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위원장 어기구 그다음에 농어촌상생기금 이것도 지금 국정감사 때마다 문제가 지적돼 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 포함해서 FTA 관련 기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재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장관님께 좀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보충질의가 시작되겠는데요. 보충질의는 역시 주질의와 마찬가지로 5분 하겠습니다. 5분 드리구요.

질의 순서대로 김선교 위원님 보충질의 5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김선교 위원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몇 점이나 줄 수 있습니까, 점수로 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게 저희가 너무 목표를 과다하게 세워 가지고 실집행률이랄까 이렇게 따져 보면 목표 달성을 많이 못 했습니다.

○김선교 위원 현장에 나가 보면 신청을 했는데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지금 실집행률이 얼마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실집행률, 저희가 2024년에 아마 3000ha 목표로 했을 건데요 한 34% 정도 지급이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16.6%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가지고 있는……

○김선교 위원 지금 장관이 그런 것도 모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34%, 금액 기준으로.

○김선교 위원 그러면 65세에서 74세까지에다가 또 늘렸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84세로? 그런데도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건 왜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도 올해 들어서 제도개선을 좀 했습니다. 수요자 원하는 대로, 예를 들면 일시지급형으로 이렇게 지급 방식을 바꾼다든가 그다음에……

○김선교 위원 거기 현장 분위기는 좀 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어떤……

○김선교 위원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대한 현장의 분위기.

농어촌공사랑 서로 얼굴 맞대고 얘기, 토론하지 않습니까, 이거? 농어촌공사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김선교 위원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저희가 일시적으로 25년도에 마련한 것은 농지이양에 대한 인정 범위를 좀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지금 방식 자체를 일시지급형을 신설하고 이런 식의 제도개선을 좀 했습니다.

○김선교 위원 장관님, 2024년도만 봐도 목표치를 청년농 육성 계획상 대상 면적으로 너무 높게 잡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넓게 잡았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아요. 3000ha 저희가 잡은 게 너무 과하게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이 제도가 실현 가능하도록 개편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김선교 위원 어떻게, 대안은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일단은 농지이양 인정 범위를 24년도 7월 달에 좀 확장을 했고요. 올해는 아예 자금 지원 방식 자체를 일시지급형으로 지원하는 걸 신설하고 이런 식의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의 개편 차원에서 우량농지의 친환경농업의 정책 우선순위도 적극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생각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김선교 위원 친환경농업의 목표 대비 여전히 저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리고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 농지를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업인에게 농지은행 등을 통해서 임대 시에 우선 선정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고 그리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 포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청년농에도 친환경농업을 이어 갈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좀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서천호 위원 해수부장관님, 오전에 질의한 내용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가 정말 지역적으로도 심각한 부분이고,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고 강과 댐으로도 연결돼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더 쏟아 주십사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위로금 성격으로 보상을 하고 다 그쳤어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댐 방류에 따르는 해양쓰레기의 소위 유입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도 없어요. 또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도 정확하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댐 관리 주체는 댐 관리 주체대로 일단 방류하고 나면 모르겠다. 그러면 해수부 쪽은 우리가 쓰레기 원인 제공 안 했는데 왜 우리보고 탓을 하느냐? 노골적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돼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께서 어마어마한 불신이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아까 장관님께서 부처 장관님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논을 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실제로 강을, 바다를 연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 쓰레기가 아닙니다. 해양쓰레기가, 그렇지요? 상류지역 쓰레기예요. 타 지역 쓰레기인데도 수거 비용은 해당 지자체에 부과를 한다 말입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책임을 방치하는 겁니다. 또 지역 간 갈등을 양산하는 그런 행태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만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리고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는 해양쓰레기 수거 정화선이 네 척 있습니다. 네 척이 있는데 국비 지원이 두 척, 지자체 한 척 또 하나는 감척 어선을 재활용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적으로 수치도 부족하지만 지난번 7월 달 폭우 때 보니까 7월 20일까지 폭우가 내렸는데 실제로 해수부에서 조치한 거는 7월 27일 날 일주일 뒤에 마산항에 있던 정화선 한 척을 소위 말하는 강진만·사천만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피해가 그냥 누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수부 조치가 늦었다는 부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화선이 적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인데, 일부는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서천호 위원 앞서 존경하는 몇 분 위원님들께서 거론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전략작물 재배면적, 애초에 부처에서 계획한 계획이 몇 % 정도 달성이 됐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략작물 직불제인가요? 벼 재배면적 감축……

○서천호 위원 벼 재배면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벼 재배면적 감축은 저희가 8만ha 목표로 했었는데요 지금 목표 대비해서는 50%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서천호 위원 57% 정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논콩, 가루쌀 등등 해서 전락작물, 이게 정부가 전량 매입하잖아요. 그렇지요? 직불금도 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직불금은 드립니다만.

○서천호 위원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한 4300억 정도 돼요, 직불금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밀, 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전락작물 직불제요.

○서천호 위원 그런데 대부분 정부에 지금 비축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제가 논콩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수입콩과의 가격 격차가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합니까, 소매 판매가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3배 정도 날 겁니다, 위원님.

○서천호 위원 그러니까요. 수입가격이 3배 정도 싸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수입이 쌉니다.

○서천호 위원 그건 왜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워낙 수입콩 같은 경우에는 규모화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생산비 자체가 낮은 거고요. 또 우리는 사실 좁은 면적에서 하다 보니까 생산비 자체를 수입콩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서천호 위원 이게 생산비 문제가 아니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추가질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서면질의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해수부장관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해수부에서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아주 긍정적인 변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해수부에서 과거처럼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려 표명 이런 게 괴담이다 이렇게 평가는 안 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리고 IAEA에 의한 기준만이 평가에 대한 유일한 기준이어서 그 결과를 우리가 신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돼 있다 이렇게 단언하지도 않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저는 종합적으로 늘 경계하면서 국민의 건강 이런 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수부가 본연의 입장을 잘 견지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농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윤준병 위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벼 3만t 대여를 하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윤준병 위원 저는 공매 방식보다 대여 방식으로 바꾼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원료곡이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처도 필요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우려처럼 이게 아무래도 대여가 되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쌀값과 관련돼서 우려도 있지요. 다만 그런 우려하는 내용이 실제 수혜자가 누구냐, 유통업자냐 아니면 실제 수혜받아야 될 대상이 농민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대여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이게 수확기 쌀값 안정에, 쌀값 안정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쌀값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윤준병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루어져 있는 쌀값 3만t 대여 방식, 대여 계획 이거는 예전의 공매 방식보다는 훨씬 바람직한 내용으로 개선이 된 내용이고 또 수확기 쌀값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좋은 계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시중에 일부 소문들이, 이번 정부가 지금 2024년산 정곡 1등급 대여를 한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윤준병 위원 그런데 이게 수입쌀을 방출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던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사실무근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그런 내용들이 불필요하게 걱정과 우려를 야기시킬 수 있는 요소잖아요.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처를 해서 이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정부가 또 편법을 쓴다든지 이렇게 한다 하는 내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과거처럼 농민을 희생 삼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정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윤준병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결산과 관련해서 보면 여성농업인들·여성어업인들, 실제 건강검진 사업을 하잖아요. 건강검진 사업들을 하는데 이걸 좀 정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해수부도 마찬가지로 농식품부도 마찬가지로.

여성농업인이나 어업인들에 대한 수검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상자가 목표가 설정이 되잖아요. 목표가 설정되면 거기 설정된 만큼 그게 수검이 돼야 되는데 실제 수검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 관리를, 예산을 세워 놓고 수검률이 낮고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것은 원래 제대로 수검을 시켜서 여성농업인들의 건강을 챙겨 보겠다는 취지가 예

산이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발취가 안 된다, 이 부분은 좀 점검해서 이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해수부장관님, 저 오전 질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수부 인력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해서, 사업명이 본부인건비 등 13개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정요구 유형이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 올렸지만 21억 6400만 원이 불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34명이 지금 부족해요, 우리 해수부가 현원이. 거기에다 또 부산으로 이전하잖아요.

해수부를 다 지원하고 해수부에서 평생 근무하기를 원하는 직장이 돼야 되겠어요, 아니면 중간에 떠나는 직장이 돼야 되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전자입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 결산 때 다시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이병진 위원 그다음에 평택해양수산청장 직급이 지금 몇 급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4급입니다.

○이병진 위원 틀렸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4급, 평택이……

○이병진 위원 그래서 3급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있는데 3급이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는데 항만공사는 벌써 1급 그다음에 자유구역청장도 1급, 세관장도 3급 그다음에 경기도 관련 국장도 3급, 충청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수산청은 4급이에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서로 업무 협의가 되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행안부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안전위원장님 해 가지고 벌써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오늘 가서 꼭 지시해서 금년도에 이를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지금 세 명이 부족해요. 평택해양수산청도 말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래서 인력유출 문제가 다시는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해양경찰청장님, 이게 결산 보니까 주의사항이에요. 사업명이 본부인건비, 지방관서인건비, 정비창인건비인데 연가보상비 문제 잘 알고 계시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PPT 한번 보세요.

3억 8900만 원 전액을 전용했고 29억 9600만 원을 또 전용했어요, 저기 보시면. 5000만 원 정비창인건비에서 또 전용을 했습니다. 이게 202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국회에서 지적을 하면 시정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적극 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물론 국정감사에서 제가 해경 각종 수당이 10년째 제자리를 걷고 있다라는 이런 지적도 드렸고, 짜장면이 60% 올랐는데 해경 순경은 762원 올랐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 기억납니까? 작년에 뒤에 계셨나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있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래서 유사 기관에 비해서 또 지급일도 적고 연가보상비도 부족합니다. 1만 3000명 우리 해경들이 열심히 하겠어요, 이런 것도 제때 지급 안 해 주면?

청장님, 그래서 이것 올해 또 지적받으시면 안 되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건지 한번 처음부터 찬찬히 검토해 가지고 부족한 초과수당이 얼마인지 의원실로 보고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이병진 위원 그다음에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이병진 위원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 장관님도 여성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병진 위원 그런데 우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실효성 제고가 정말 필요해요. 사업명이 보니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적어요, 유병률이. 그런데 질병 유병률은 7.1%예요, 남성은 4.6%.

그리고 이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방식에 따른 특수건강검진 수검률, 이동검진 수검률이 높거든요. 병원에 가기가 힘들잖아요, 여성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이병진 위원 이동률을 높여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수검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51세부터 71세 여성농업인 1000개 이상 시군구 현황을 보니까 71개 시군구 이것밖에 안 돼요. 시간이 다 지났는데 하여튼 수검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1000명 이상 이런 시군구로 제한을 했는데 저희가 그것도 좀 제도개선 하려고 그러고요, 연령도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말하자면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검진 자체도 이동검진을 확대해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이만희 위원** 어제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내용을 아마 실시간으로 지켜보셨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언론에 뜨는 것들 봤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런데 어제 그 대화 과정에서, 언론에 그렇게 많이 주목받는 건 아니었는데 농산물의 수입 개방 이런 것과는 별도로 제가 듣기로 농지 문제를 간단하게 언급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는 그것은 잘, 놓쳤습니다.

○**이만희 위원** 제가 듣기로 알래스카의 에너지 개발과 한국에서의 수입 이런 걸 촉구하면서 어떤 문제를 지적했느냐 그러면 우리나라 양질의 농지에다가 중국산 태양광 같은 걸 들여와서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고 아마 그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우리나라의 농지보전의 문제도 언급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되는 태양광 이런 것보다는 알래스카에 무한한 자원들이 있으니 이걸 많이 가져다 수입해서 써라 이런 걸 촉구하면서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저도 기본적으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농지법의 개정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일정 부분 양질의 농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일명 영농형 태양광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농지법 개정안 발의해 주신 게 30건 정도 됩니다, 위원님. 맞물려서 영농형 태양광도 또 수요도 있고요 우려하시는 대목도 있기 때문에 좀 조화롭게 의논해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US 데스크는 설치가 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저희가……

○**이만희 위원** 그러면 설치를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검토하는 겁니다.

○**이만희 위원**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는 마치 US 데스크가 설치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7월 말에 검역 절차 개선과 맞물려서 US 데스크가 논의됐고요. 오늘 정상회담 마치고 정리가 되면 아마 실무협의를 해 나가면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희 위원** 어쨌든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미국산 사과 등을 포함한 과채류, 농산

물 수입 과정에서의 위생검역 절차 등은 말 그대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검역주권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지난번에 제가 국회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 농림부 담당 과장께서—검역 과장이신가요—오셔 가지고 아주 단호하고 확고한 자세로 검역주권을 지켜 내겠다는 말씀들을 해 주셔서 든든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꼭 좀 잘 챙겨 봐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 아마 일부 국정과제로도 발표됐을 것 같은데 농촌기본소득, 어떻습니까?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지금 시범이 26년도부터인가요? 26, 2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26년부터 27년까지 시범사업을 2년 정도 해서 판단을 해 보자 이렇게 지금은……

○**이만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모든 전체 주민 대상 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게 얼마큼 효과도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배분할 것인지 하는 고민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좀 더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리고 전재수 장관님, 지난번 용산에 예비비 가지고 이전할 때 일부 발표된 것, 4월 6일 자 신문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360억 예비비 썼다고 그러면서 사용내역이 구체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번에 제가 해수부 이전 관련해서 그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이유는 어쨌든 새로운 신청사를 만들 텐데 굳이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급하게 모든 직원들의 동의나 생활 환경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은 채로 다시 옮겨 가야 될 장소에 거의 900억 가까운 돈을 써서 그렇게 가는 게 맞느냐? 조금 더 부산시민의 의견, 해양수도로서의 상징성, 그건 장관님이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신청사를 제대로 부지를 잡아서 건설해서 옮겨 가는 것이 시간도 줄속이전에 따른 부작용도 줄이면서 좀 더 확실하게……

하여튼 해수부 부산 이전의 효과를 더 제고할 수 있지 않느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위원님 말씀 어떻게 반영할 건지 잘 유념을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취지를 제가 다 잘 알겠고요.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냥 잘 믿어 달라, 내가 잘하겠다 이 정도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면…… 제가 전재수 장관님하고 기본적으로 깊은 신뢰관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못 믿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점검하는 데 있어서 좀 협조를 해 주시라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러면 위원님, 이것은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의원실에 아마 전체 예비비 867억에 대해서 총액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 담당 국장이나 해서 의원실에 큰 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청사 이전 비용이라든지 또 공사비 이렇게 큰 항목별로 해 가지고 한번 구두로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어떨는지……

○위원장 어기구 두 분이서 소통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하여튼 걱정하지 않으시게 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려가 어떤 점이라는 건 알고 계시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가 계시니까 우려 없도록 잘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임호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 좀 빨리 질의드릴게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존경하는 이병진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실행률 내역 보니까요 예산 33억 중에서 19억 집행됐고요. 13억, 그러니까 약 20억 집행됐고 약 13억이 불용됐어요. 집행률이 60%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60% 좀 넘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신청 시군구가 50개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시범사업 끝나고 본사업으로 되면서 왜 이렇게 실행률이 낮을까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매칭이 40%라서 신청을 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앞서 제도개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해수부에서도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맞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해수부는 상한연령이 없어요. 51세 이상은 다 여성어업인……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해수부장관님께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검진항목도 해수부가 더 다양해요. 손목터널증후군 같은 경우는 여성어업인은 되는데 여성농업인한테는 안 되고. 여하튼 이런 언밸런스가 있는데, 나이제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70세 이상 여성농업인이 전체 40%거든요. 고령화는 급하게 빠르게 지금 되고 있고, 그래서 연령으로 자른다고 하면 70세 이상 여성농업인을 배제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그렇게 고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것 장관님 진짜 각별

하게 관심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검진비를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40% 가까이를 집행 못 한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건강검진사업을 하고 있는 음성군수님을 만나 뵈어요. 음성군 같은 경우를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450명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그러니까 여성단체에서 의료기관 확대를 계속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현행 지침상에 검진인원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개 기관만 지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 검진기관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것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임호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살피서 가지고 많은 여성농업인분들께서 특수건강검진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여성어업인 같은 경우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농림부 내용을 검토하다가 그러면 해수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니까 장관님 가서 가지고 살피셔야 될 부분이 많은데 작년에 실행행률이 농림부에 못 미쳐요. 37.9%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잘 추진되고 있느냐 보니까 11억 예산인데 교부된 게 6억만 교부가 됐고요. 교부된 것 중에서 집행률을 보니까 23.4%예요. 2억 700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11억 예산 중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2억 7000 집행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서 내년 예산 세워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피셔야 될 부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장관님 이것 꼭 좀 살피 주시고요.

살피셔야 될 부분들 중에 어구·부표 보증금제라는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너무 디테일한 사업이라서 그런데 이것 내년도에 확대를 한다는 거예요. 현재는 통발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보증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려면 문제는 반납장소거든요. 그런데 반납장소가 부산은 30개 정상적으로 100% 운영이 돼요.

그런데 전남 같은 경우는요 50개가 페어구 반납장소인데 7개밖에 운영이 안 돼요. 전남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운영되는 게 왜 미운영되는지 꼭 살피셔야 됩니다. 184개 반납장소 중에서 운영이 지금 절반도 못 미칩니다. 46%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운영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확대하겠다?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체가 집행이 안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조금만 더, 왜냐하면 한 가지만……

○**위원장 어기구** 그냥 마무리해 주십시오, 바로 앞에 계시니까.

○**임호선 위원** 그냥 할게요.

산림청장님, 제가 어제 백두대간법 20주년 심포지엄을 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생태축 복원 지자체 보조사업이 있어요. 현황 보니까 실집행률이 중복이 12.4%고요 경상남도 7.1%예요. 그래서 이것 마루금 연결사업인데 왜 이런지, 저도 대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청장님께서 관심 갖고 집행내역 좀 살펴 주시고요.

○산림청장 김인호 알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또 하나는 생태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산림청장 김인호 예.

○임호선 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부에 유사사업이 있는데 산림청은 간접지원 성격이고요 환경부는 직접지원사업 성격이에요. 그래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 환경부 사업을 조금 더 검토해서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조금 보완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장관님, 청년농과 관련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도 있고 이후에 국감 자리나 이럴 때 의견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인데요. 계란값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런 계란값 파동이 생길 거라는 것을 농림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케이지……

○임미애 위원 예, 사육면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작년 11월 20일 날 농림부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보면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수급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핵심 내용을 보면 계사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상향해서 케이지 단수를 현재는 9단인데 이것을 12단으로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확인한 것은, 놀라운 게 축사의 규제기관은 농림부인가요, 환경부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환경부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환경부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미애 위원 7월 29일 날 농림부 담당 부서하고 환경부 담당 부서가, 저희가 계란 문제 때문에 송옥주 의원실하고 오랫동안 이 작업을 했었고요. 송옥주 의원실에서 저희가 담당 부서를 만났는데 그때 확인한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미애 위원 환경부는 건폐율 20%에서 60%까지 상향 그다음에 케이지 12단 확대 이거는 절대 불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농림부는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축산농가는 농림부 발표를 믿고 ‘아,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작 환경부에

서는 그것 절대 불가 이런 입장입니다. 이거 써가 안 먹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SBS 뉴스에도 보면 달걀값이 치솟으니까 그래서 가게 문을 열자마자 오픈런 사태가 겹치고 이러면서 농림부가 축사시설의 공간 활용도 높이기 위해서 규제 개선 추진하겠다는 걸로 국민들한테는 농림부가 뭔가 대책이 있는 것처럼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환경부는 이 규제를 고칠 생각이 전혀 없고, 그리고 그렇게 치면 농림부가 발표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데 축산업은 뻔히 환경부 규제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농림부에서 환경부하고 전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사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이런 기초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대책이 과장님 결재 받고 국장님 결재 받고 장관님 이름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거 대책 있으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환경부랑도 TF 만들어서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계분의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자원화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축산 전부 다가 똑같은 게 아니라서 축종별로 자원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살리자라고 저희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자원화와 관련해서는 바이오차 하겠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고체연료로……

○**임미애 위원** 그런데 제가 당황스러운 건 이런 발표를…… 계란이라는 것이 서민 식품인데 계란값이 벌써 여러 달째 파동을 거치면서 지금 공정위에서는 수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런 상황에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를 하는데 농림부가 정작 규제기관인 환경부와 일언반구 협의도 없이 이런 대책을 발표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그런데 지금 달걀값 같은 경우에는 케이지 규제 개선이지요. 하여튼 케이지 문제뿐만 아니라 실은 가격 고시 결정하는 시스템하고도 관련이 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돼 있는 거라 저희 나름으로는 가격결정시스템을 시장 수요를 받는 이런 방식으로 고치는 거와 함께……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부처 간의 협의가 이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 명의로 발표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 이후에 업무를 보실 때 부처 간의 협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나서 발표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축사 문제 규제 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 것은 농림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규제 부처와 협의를 긴밀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그러니까 환경부에 수질오염 총량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런 게 있는데 이 해석에 대해서 실은 지자체마다 조금 또 차이가 있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엄격하게 20% 이거를 지키고요 또 다른 지자체 가면 그렇게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분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랑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계란 가격 관련해서는 케이지 문제 말고도 다른 사안들이 복잡하게 얹혀 있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타 부처랑 연계된 게 있으면 철저히 사전에 정리하고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해경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해양경찰병원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회에서도 증액 반영을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작년 정기에산, 올 추경 1차·2차 안 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26년도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에는 일단 정부 요구에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은 저희가 적극 공감하기 때문에 국회 증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이런 내용이 정부 예산에서 빠져 있는데 국회 증액이 되겠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3년 동안 저희가 줄기차게 노력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주철현 위원** 이번 대선에서 해경과 관련된 공약에 이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직원들이 제일 바라는 게 해경전문병원인데 이런 것들이 대선공약에도 안 들어갔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공약에는 현재 해경 전력증강하고 첨단화 이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전문적인 해양 전문 질병 관련 대응 같은 것은 빠져 있다는 말씀이네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주철현 위원** 하여튼 간 어떻게든지 간에 저희도 노력을 할 테니까 해경 차원에서도 좀 더, 기재부라든가 다른 정부부처라든지 대통령실에 요청을 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해경병원이 건립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해수부장관님, 아시겠지만 올 초에 대규모 물김 폐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통계에 의하면 거의 한 6000t 가까운 물김이 올 1월 한 달 동안 전국 위판장에서 유출, 폐기됐고 그중 88%인 한 5300t가량이 전남에서 폐기가 됐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2024년도에 김 신규 면허를 많이 내줬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물김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철현 위원** 저도 똑같이 보는데요. 작년에 2700ha의 신규 김 양식 면허를 대폭 허가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물김 생산이 늘어나고 이와 관련된 마른김 가공 역량 같은 것도 검토가 함께 돼야 되는데……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전혀 이게 없이 그냥 이렇게 대규모 면허를 하여튼 간에 신규로 해 주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마른김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김 계약 생산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정부안에 지금 현재 400억 정도가 반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마른김 건조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있는데 지금 내년도 정부안에 60억 정도가 반영돼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여수 같은 데는 거의 한 1000ha 시험양식장까지 신규 면허가 됐는데 가공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이게 가동되기 시작하게 되면 도저히 어떻게 할지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관련해서 적정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천생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신규 면허를 발급할 때는 충분히 가공 역량이 고려가 돼야 되는 것인데 기왕에 면허를 발급됐고 생산량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가공 역량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 당국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올 초처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리고 제가 시장을 하면서도 느낀 것이고 농해수위 위원 하면서 계속 요구를 하는 건데 해양 관련 양식면허 있지 않습니까? 면허를 한 번 내주게 되면, 물론 법상은 10년 기간에서 한 번 연장해 주는 것으로 돼 있지만 영원히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주게 되면 공공의 바다가 특정 개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사적 소유가 되어 버리거든요. 없애려면 국민 혈세로 보상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공공재산에서 재원을 하여튼 간에 어떻게든 조성해서 어민들에게 기본 소득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공재인 바다를 이렇게 특정 몇 사람이 독점하게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면허제도 개선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새로운 방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양식장 여러 가지 양식하는 환경들을 검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바닥에 오염물질들이 많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한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줘 가지고 그 안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복원이 안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철현 위원 면허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이게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그것을 사실상 행사계약이라는 명목으로 임차해 주고 이익을 취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직접 임차해 주고 그 재원을 가지고 어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 면허제도의 새로운 개선이라는 혁신이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해수부 차원에서 이것을 연구용역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물고기 잡는 것 또 기르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기후위기가 촉발한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저희들이 수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식면허라든지 이런 것들도 두루두루 한번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조승환 위원 농림부장관님한테는 질의 준비도 해 왔는데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위원님.

○조승환 위원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해양수도 부산으로서 해양수산산업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런데 저는 과연 북극항로가 대한민국의 제2 성장엔진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북극항로를 소위 개척한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항로 개발 외에 북동항로를 이용한 항만 및 배후지 인프라 건설사업이라든지 극지 자원 개발 사업, 과학 연구 등 극지활동 전반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같이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렇다면 북극항로 정책과 기존에 우리 하고 있는 극지활동 정책과의 차이가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조승환 위원 그리고 지금 북극항로, 북극항로를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한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북동항로를 간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환적화물과 로컬화물을 포함해 가지고 유럽까지 직접 가는 화물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조금 추가할 내용이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지금 한국에서 로테르담까지 가는 게 1650만TEU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 그중에서 지금 한국에서 로테르담으로 가는 것이 한 160만TEU……

○조승환 위원 잠시만요. 1650만이니까 한 150만TEU 정도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러니까 1650만 개 중 165만TEU 정도가 지금 한국에서 로테르담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량이 3000만TEU 보면 되거든요, 조금 더 올라갑니다만. 그러면 불과 5%에 불과합니다. 이 물동량을 가지고서 과연 북동항로를 통한 북극항로의 활성화라는 게 어떤 새로운 제2의 대한민국 성장동력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일반예비비 지출 한 876억이 심의 의결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정부에서 계속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과거 대전에 특허청 등 청 이전 그다음에 세종 이전 그다음에 새만금의 새만금청 이전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의 정책을 보면.

그런데 부산 이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전세 물량 자체가 절반으로, 해수부 이전 발표 이후에 전부 시장에서 다 거둬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무슨 비용을 얼마 지원해 가지고서 주거 문제를 안정시키겠다, 저는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캠프를 통하든 LH를 통하든 직접임대 방식, 관사 제공 방식의 주거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해수부가 동구나 인근 생활권에서 건물 단위로 직원들 숙소를 계약했다든지 또는 층 단위로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실적이 있으면 어느 정도인지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해수부의 이전과 관련해서 기능과 역할이 지금보다 보장된, 기능 이전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조선기자재 기능이 아니라 조선 기능을 분명히 가져오겠다라고 장관님 청문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제2차관 부분이라든지 또 세종 연락사무소, 서울 연락사무소의 직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드리고 청문회에서 그에 대해 동의를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로드맵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수산부 신청사하고 공공기관…… 지금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또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집적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사실 제 지역구 문제가 돼서 조금 말씀드리기 꺼려스럽습니다마는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KIOST, KMI, 해양조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해사고등학교, 근처에 인근 해양대학까지 이미 해양과학기술, 해양정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양인력 양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집적과 지금 이번에 이전하는 해양수산부 중심의 집적과의,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 거고……

제 생각으로는 해양수산부는 정책을 하는 기관으로서 어떤 기능에 맞추어서 위치를 정하고 그다음에 지금 남아 있는 KOEM이라든지 어촌어항공단, 한 군데 더 있는 걸로…… 이런 기관들의 기능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집적화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장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질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아니, 질의가…… 위원님들 질의 시간 없다고 안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위원님, 제가 그러면 서면으로……

○위원장 어기구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어기구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일단은 아시아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는 1650만TEU 정도 됩니다, 아시아에서 로테르담까지. 그중에서 한국에서 로테르담까지 가는 물동량은 전체 한 10%, 한 156만TEU 정도 됩니다. 그런데 156만TEU 가지고서 로테르담까지 가 가지고 무슨 경제성이 있겠냐, 상업항로가 가능하겠냐 이제 이런 비판이신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물동량 수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7·8·9·10·11월 5개월 정도 했을 때 그런 것이고, 최근 10년 사이에 북극항로를 이용한 전체 물동량을 보시게 되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북극항로가 일상적인 운항이 가능하게 되면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동남아시아까지 물동량이 부산항을 거쳐서 북극항로를 거쳐서 유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홍해 근처로 해 가지고 해적활동이 늘고 있고 HMM이나 우리나라 상선들이 안전 운항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지금 희망봉으로 가고 있는 상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수에즈운하로 가게 되면 컨테이너선 기준으로 해서 380만 달러 정도 들지 않습니까. 수에즈운하를 했을 때 한 380만 달러, 그런데 희망봉으로 돌아가면 한 420만 달러 들잖아요. 북극항로는 지금 러시아가 쇄빙선을 앞세우고서 소위 말해서 통행료 같은 것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한 300만 달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로테르담으로 가는 물동량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이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새만금청 또 우주항공청 옮기는 그런 사례들을 말씀하시면서 해수부의 이전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질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지금 전 세계가 어떤 경쟁을 하고 있는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열리게 되면 이것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거점도시, 전략도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부산으로 삼아 가지고……

이 부산이 모든 화물을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부산항은 컨테이너 전문 처

리 항만으로 가야 되고, 그렇다면 북극항로를 이용한 여러 가지 화물 종류들이 있을 텐데, 액체화물도 있을 테고 벌크도 있을 테고 유조선도 있을 테고 탱크도 있을 텐데 그러면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수, 광양, 진해 그다음에 포항, 울산에 이르는 다양한 항만들의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북극항로 물류를 선점한다면 여수·광양에서 시작해 가지고 울산·포항에 이르는 하나의 경제권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서울·인천·경기라고 하는 서울수도권이 있다면 여수·광양·부산·울산·포항으로 이어지는 해양수도권을 하나 더 만들어서 우리가 서울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이전에 새만금청 옮겨 가고 통계청 옮겨 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말씀을 줌……

○조승환 위원 저는 주거 지원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거 지원.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답변……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위원님께서 쪽 질문만 하시고…… 이것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예.

○위원장 어기구 조승환 위원님 질의, 장관님 답변 시간 포함하면 10분 지났습니다, 10분. 이 점 유념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이것은 불공정합니다.

○조승환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질의 시간 5분은 답변이 포함된 시간이라는 점을 위원님들께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질의하시는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송 장관님, 저도 청년농민 관련한 자료를 준비했는데 임미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그 답변 과정에서 양보다 질적으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컨설팅이나 경영회생기금 이런 걸로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필요한 일이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영회생기금과 관련해서는 할 말은 있지만 이것은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게 알맹이가 빠졌어요. 어떤 내용이나 하면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까만 2018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초기에는 두 가지 형태로 청년농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정책자금을. 귀농 자금으로 받으신 분들이 있고 후계농 자금으로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상환 조건이나 내용이 좀 달랐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귀농 자금이 조건이 좀 더 좋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후계농 자금이 금액도 올라가고 상환 조건도 좋아지면서 이쪽으로 많이 더 오게 됐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전종덕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은 청년농인데 후계농 자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환 조건이 좋아졌고 귀농 자금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면서 2020년 대상자부터는 소급 적용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시작됐

던 것이 5년 거치 20년 상환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18년·19년 초기 대상자에 대해서 여기는 제외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 대상자들은 당장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전북 김제의 32살 아까운 청년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다 여기에 기인된 내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초창기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제가 17년 사업시행지침부터 해서 20년까지 다 봤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초창기에는 ‘이 자금이나 저 자금이나 괜찮으니까 둘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행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귀농 자금으로 유도를 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랬다고 합니다.

○전종덕 위원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증언도 있고 자료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시행지침 자료를 보니까 5년 우대조건, 5점 가점까지 주면서 이쪽으로 계속 유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좋으니까 초창기에 청년들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나중에 정책을 시행하면서 후계농 쪽은 좋아지고 귀농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제 상환 시점이 되니까 이게 큰 폭탄이 된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뭔가 대출받은 것을 갚을 정도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정에 자연재해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농업을 타작물로 전환하면서 정책이 실패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소득이 나서 대출 갚을 정도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당장 지금 3450만 원, 4000만 원, 이 전북 농민도 이 많은 비용을 갑자기 갚아야 되니 빚을 내서 갚고 있던 상황이에요.

18년·19년 대상자도 후계농이든 귀농이든 둘 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5년 거치 20년 상환 연장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연장되지 않으면 지금 이미 청년농으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차별일 뿐만 아니라 김제 농민의 이 극단적 선택이 지금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 해결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말씀……

○전종덕 위원 장관님, 이것 5년 거치 20년으로 18·19년 대상자까지 다 확대해 주셔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잘 살펴보고요. 상황이 다 다르더라고요. 만나 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각자 상황이 다 달라서 저희가 한 분 한 분 컨설팅해 가면서 맞춤형으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정부를 믿고, 정부 정책을 믿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저 줘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잘 알고 있고요.

○전종덕 위원 이 사람들이 다시 울지 않도록, 우리 농촌에서 우리 농업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것은 저는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책임 있게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이것 더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좀 연장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하여튼 각각의 형편이 다 달라서 정부 기금상의 차이 이런 것들이 또 누군가한테는 다른 불평등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 잘 고려해

서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청년농업인으로 선정 조건이,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다른 후계농들한테, 귀농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청년이라는 특성이 있고 청년농으로 자금 형태가 어쨌든 간에 선정을 했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조건을 맞춰서 선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비추어서, 정말 이들마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어촌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전종덕 위원 대책을 빨리 세워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대책 마련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전종덕 위원님 모범적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문금주입니다.

해수부장관님, 오늘 보니까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행안부에 있을 때 보면 또 전남도나 시에 있을 때 공공기관 이전 관련 업무를 해 보면……

어떠신가요? 해수부는 부산 위치가 정해졌지요? 정해졌나요? 부산 동구로 이전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임시청사는 정해졌고 신청사 부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문금주 위원 그런데 관련해서 보면 예를 들면 부산 동구로 이전을 하게 되면 부산시나 동구청 같은 데…… 예전에 저는 도나 시에 있을 때 별도의 TF를 만들어서 손님 맞을 준비를 했거든요. 거주지부터 해서 자녀들 교육 문제,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중앙에 있거나 세종에 있는 분들이 날마다 와 가지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TF 해서 그런 것들 살펴서 정보도 제공하고 이런 역할들을, 노력들을 했는데 부산은 어떤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지금 해수부차관하고 부산시 부시장이 정기적으로……

○문금주 위원 TF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아니, 부산시나 어디 구청에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구청은 모르겠고 시에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해수부에 근무하는 직원들 만족도가…… 솔직히 만족하지는 않을 텐데 어찌 됐든 불만을 최대한 줄여 주는 게

우리 장관님, 차관님들이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될 거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습니다.

○문금주 위원 거기 세세한 내용들 보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부부 공무원 같은 경우, 타 부처에 근무하는 부부 공무원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전입·전출 문제랄지. 또 거기에 보면 교육 공무원들 문제도 있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 예를 들면 한참 수능 대비하는 고3이나 고2 이런 정도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전을 못 할 텐데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예전에 제가 행안부에 있을 때 보면 이것 인사로 많이 풀어 줬거든요, 그런 고충민원. 일일이 상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또 세심하게 신경 써서 배려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 노력들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 저도 틈이 날 때마다 우리 해수부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850여 명의 직원들이 내려가야 되는데 850가지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게 하자, 그래서 제가 지원정책을 숙달해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또 모르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전담팀을 꾸려 가지고 그야말로 맞춤형 컨설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예, 그런 노력들을 정말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 100%가 만족은 안 되겠지만 그리고 또 물론 한꺼번에 일시에 해소는 안 되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몇 년간 계속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기재부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이 전수당 이런 부분도 좀 현실화될 수 있게끔 한달지 여러 가지 정말 노력해야 될 게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나머지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관련해서 최근에, 24년도 언론보도이기는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문금주 위원 좀 부풀리기했달지 중복 청구한달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던데요.

보니까 수거실적을 검증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부실하다 하는 지적이 있고 동일 해역, 동일 기간에 대해 여러 사업이 중복 집행되는 경우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 또 너무 수거물량 위주로만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드러내기에 한계가 있다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장관님이 잘 살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어제 문대림 위원님과 송옥주 위원님 두 분 주관하에 감척사업 관련해서 토론회도 있었는데 이 관련해서 제도개선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 자료집 제가 잘 챙겨 봤습니다.

○문금주 위원 예, 챙겨 보셨다니 뭐……

○문대림 위원 그 법안은 문금주 의원이 발의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문금주 위원 하여튼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갯벌복원사업 이 부분 그때 장관님이 약속 주셨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좀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문금주 위원 이번에 추가로 2차 계획 수립할 때 좀 더 많은 예산, 물량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제가 이번 여름휴가를 짧게 우리 문금주 위원님 지역구인 고흥을 갔다 왔는데요. 고흥군수가 저한테 민원을 하나 제기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양쓰레기 문제 관련한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섬 지역의 해양쓰레기가 되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섬은 유인도도 있지만 무인도도 많고, 부두가 없기 때문에 배가 접안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섬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특별한 배를 건조해서 하나씩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고흥군수님의 민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잘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섬 지역에는 페타이어 문제도 심각한데요. 아울러서 그런 문제들 한번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섬에는 접안이 어렵기 때문에 특수한 배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 세울 때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구 위원 900t급 하이브리드 어업지도선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어업지도선이 뭔지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뭐 대략 알고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 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육상의 자동차 하이브리드 비슷한 것 아닌가요?

○강명구 위원 예, 배터리하고 경유 방식을 적용한 배인데요.

장관님, 이 사업이 지금 3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알고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이 사업이 21년부터 24년까지 총 969억 원가량의 하이브리드 어업지도선 3척을 건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계약업체가 허위문서를 제출하면서 소송이 제기되면서 법원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면서 완전히 멈춰 있는 상태인 것 알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강명구 위원 이게 전체 공정률 50% 정도 됐는데 350억 원 이상 집행됐지만 완성 안 된 선박들이 지금 야적장에서 방치돼 썩고 있다고 그래요. 이대로 가면 그냥 10억짜리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강명구 위원 이 때문에 2024년도에는 260억 원이 불용됐습니다. 2025년도에는 본예산과 추경에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세월아 네월아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강명구 위원 2026년도 정부안에 이 예산 포함됐나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지금 26년도에 262억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반영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강명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자들, 포함되어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26년도 정부안으로 262억 3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예, 그것 다시 한번……

어쨌든 이게 건조공정의 조속한 재개가 불가능하게 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구요.

이게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수부에서, 어쨌든 해수부가 계약을 잘못해서 생긴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강명구 위원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하셔야 된다, 아니면 국민 세금만 축내는 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의 기성물 노하우와, 부식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강명구 위원 해양경찰청장님 나와 계신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해경청장입니다.

○강명구 위원 청장님, 존경하는 이병진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24년도 지방관서인건비 예산이 8009억 원 편성돼 전액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강명구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23년도 초과근무비 지급을 위해 무려 13개 세부사업에서 이용, 전용, 내역변경 합계 240억 원을 다른 사업에서 끌어다 썼어요. 그렇지요? 청장님 사실이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강명구 위원 예산 이·전용은 국가재정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저희 법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승인

을 받아서 이·전용을 했습니다.

○강명구 위원 그래요. 그런데 해경처럼 매년 반복적으로 이·전용을 한다면 이게 예외 적용이 아니라 편법적으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예결산 심의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수년간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였고, 작년에 700억을 더 편성했고, 올해는 규정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인건비도 600억 이상 증액 편성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규정을 어기지 않고 법규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그런데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도 이것을 자꾸, 이·전용을 중단하라고 시정요구를 하는데도 왜 잘 안 되는 거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해양경찰 직원들은 1만 명 정도가 현업직입니다. 그래서 외국어선 단속을 포함한 긴급출동 그리고 긴급구조 상황, 태풍이나 이런 비상사태가 있으면 직원들이 동원됩니다. 동원이 된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고 그 경우에 지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한 번 오는 경우에 저희가 50억 원 정도의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 사정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그러면 어쨌든 매년 한 삼사십% 다른 예산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게 의도적인 과소 편성이네요.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700억을 더 편성해서 금년도는 예산편성지침대로 집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600억을 더 편성했고 이제 인건비는 부족하지 않은 상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규정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어쨌든 청장님, 국회의 시정요구를 가볍게 듣지 마시고요. 지방관서 인건비나 공공요금에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 관리를 해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청장님, 좀 전에 질의하다 정리를 못 했는데요.

어쨌든 당시에 안성식, 실세라고 볼 수 있었겠지요. 대통령과 고등학교·대학교 동문이고 인수위에서 활동을 했고 국정상황실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실세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저는, 그러한 제안 또는 명령을 받았을 때 거부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매우 적절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때 그 명령에 따라 가지고, 실세니까 그 제안에 따라 가지고 해경이 움직였다면……

해경이 부활된 지 몇 년 됐습니까? 8년 됐지 않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또다시 해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님 좀 긴장을 하셔야 된다. 제가 과거의 사건들을 좀 들여다보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때도 보니까 재판 과정에 서욱 재판장에 출석하신 분께서, 수사 결과를 번복한 이유가 뭐냐, 번복 발표한 이유를 묻자 뭐라고 답한 줄 아십니까? 위에서 시켜서

했다라고 했어요. 그 재판 기록들, 판결문들 한번 봐 보십시오. 그 위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해경이 휘둘리지 말아 달라,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양주권 수호, 해양안전·해양치안 확보,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 이것들에 대해서 청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내란과 관련해서도 반성할 것 있으면 반성하고 그 당시에 적절한 대응을 한 분들이 있다면 치하하고 이러면서 자정 또 독립적 위상을 갖는 계기로 삼아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존경하는 위원님, 12월 3일 날……

○문대림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우리 해양경찰 직원들은 말씀하신 대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제자리를 잘 지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대림 위원 12월 3일 그러한 부당한 요구, 부당한 지시 이게 있었다는 사실 언제 파악했습니까? 그래서 어떤 조치를 했어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말씀드린 대로……

○문대림 위원 지금 시간 관계상 그렇고요.

어쨌든 예산과 관련해서 장관님, 청장님, 서면질의 한 35개씩 들어갔으니까요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문대림 위원 ‘행정을 하다 보면 악의 없이 공급자 중심의 사고, 행정을 하게 된다. 정책 수혜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그들의 입장에서 결정하는 것과 공급자들이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과고는 수용성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 대통령님의 말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대통령님 말씀입니다.

○문대림 위원 행정편의주의, 공급자 중심주의에서 탈피하라,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통해서 정책의 수용성을 높여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매우 필요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농업행정을 보게 되면 가장 문제가 농림부 같아요. 저는 작년 8월 26일이 자리에서 장관께서……

PPT 한번 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당근과 관련해서 50% 발아율 이상 되어야 된다는 규정에 대해서 당근 작목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니까 장관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장관님 답변 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말 하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잘 살펴보겠다고 했던 올해는 50% 발아율도, 당근 작목인 경우에는 발아율 기준으로 보험 가입 기준을 삼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당근은 일단 발아만 시키면 농사 한 80%는 지었다고 봅니다. 그만큼 강하거든요. 문제는 발아입니다. 그런데 재해적·기후적 영향 때문에 발아가 안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보험이지, 그런데 발아율 80%로 한다? 이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공급자 편의주의, 탁상행정이다.

그리고 실시 이틀 전에야, 그렇게 농민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도청에서도 이의 제기하고 농협에서도 이의 제기하고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도 수차례 불러서 이의 제기했는데도

아무런 얘기 안 하다가 실시 바로 이틀 전에야 기습적으로 공표하고, 이게 어디서 하는 행정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님 말씀 새겨들으시고요.

모든 작목의 작목별 특성에 대해서…… 마늘 같은 경우는 마늘 파종도 안 끝났는데 보험 가입을 종료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작목별 특성에 대해서 고려해서 당근인 경우에 밭아울 50%도 부담스러운데 80%까지 하게 되면 재해 때문에 재파종 삼파종, 파수 장비 다 걷어 내고 기계 들어내고 파종비 들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재해로 인해서 다시 재파종 삼파종 해야 되는데 이게 원천적으로 밭아울 80% 때문에 보험 차단시켜 버리는 거지요. 농림부가 당근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해 놓고, 정말 당근으로 뒤통수 맞은 느낌이에요.

살펴보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실 거예요. 사실은 품목별로도 다르고 같은 품목을 하는 농가별로도 또 차이가 있어서요. 사실은……

○문대림 위원 형평성, 저도 얘기 들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들으셨을 겁니다.

○문대림 위원 형평성하고 부정수급 얘기하는데 부정수급을 그렇게 취급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어느 농가……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장관 한 분이 잘못했다고 해서 역대 장관 다 처벌할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요. 어떤 농가 때문에……

○문대림 위원 지금 그거잖아요. 몇 사람의 실수 때문에 전체 농가는 피해를 감수해야 이런 징벌적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고요. 위원님도 저간의 사정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문대림 위원 그런 부정수급 사례가 몇 건이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하필 또 당근농가에 그런 농가가 있었어서……

○위원장 어기구 문대림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아니, 그 한두 건 때문에 수많은 당근농가들이 징벌적 피해를 봐요? 그게 말이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최대한 농가별로……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하니까 타 작목과의 형평성…… 타 작목과의 형평성이 맞아요? 밭아울이 똑같아요? 그리고 부정수급, 그러면 장관 한 분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 다 처벌할까요? 똑같은 논리잖아요.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이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정말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빈말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 저희 직원들이 여러 차례 제주 가서 여러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

○문대림 위원 현장에 갔었고, 저도 현장에 갔었고 술하게 소통을 했어요. 그런데 기습적으로 시행 이틀 전에 발표해 가지고……

지금 농민들 갖고 노는 거예요?

○위원장 어기구 다시 한번 잘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님.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송 장관님 잘하시는데……

장관님,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환원해서 쓰는 그런 것을, 부처 간에 그런 관련된 규정들이 혹시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오봉저수지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강릉의 오봉저수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서삼석 위원 그걸 좀 더 들여다보고 더 활성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잘 좀 한번 들여다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삼석 위원 그리고 아까 앞선 질문에서 국정과제 관련해 가지고 세부사항을 저희들이 자료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농업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니까 다 포함이 됐다고 그래서 농업 부문은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해수부 관련해서는 수산종자 재해보험 도입과 자조금 사업의 추진 과제가 들어가 있는지 또 직불금 인상이 포함돼 있는 건지, 그것 참 하염없는 여객선 공영제 관련된 것들이 포함돼 있는 건지 그걸 확인할 수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세 가지 국정과제가 됐는데 큰 틀에서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세부 실천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삼석 위원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공유가 안 되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 세부 실천과제는 국정기획위원회……

○서삼석 위원 안에 그것 포함돼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국정기획위원회의 의견이고 여러 의견들도 수렴을 해서 지금 수정·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삼석 위원 포함이 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저희 의원실로 연락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산림청장님, 임업직불제 확대 및 산림보전지불제 및 산지은행 도입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나요?

○산림청장 김인호 그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는데요. 농림부와 협의해서 세부 공약에 지금 수정·보완 중이기 때문에……

○서삼석 위원 산촌 및 산림 활성화 공약도?

○산림청장 김인호 예.

○서삼석 위원 그것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산림청장 김인호 예,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여러분들이 그걸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공 안 하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김인호 예,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다음에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서삼석 위원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기후환경 부서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의 하위 1개 과에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는데 맞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거기도 있고 또 재해보험과도 있고……

○서삼석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걸 전담하는 국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지를 한번 보여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그런데 위원님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서삼석 위원 문대림 위원이 말한 당근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당근은 다른 경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삼석 위원 그다음에…… 참 아이러니한 대한민국이지요. 쌀은 남아도는데 식량자급률은 떨어지는 나라, 대한민국 말고 또 있을까요? 뭐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자급률 하락 원인을 보니까 각종 사업 집행 부진에서 오는 경우가 여럿 대표적으로 있었어요. 비축 지원사업은 비축 목표에 비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 전략작물인 콩으로 전환했지만 결국 팔지 못해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경우 또 전략작물 가공확대 지원사업은 업체 참여 저조로 무려 16억 원을 불용한 사례, 가격 안정을 위한 농산물 생산·유통 조절 지원사업의 집행률 27%로 145억 원을 불용한 사례, 쌀 수급 예측시스템 구축사업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올 말에나 도입이 예상된다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자급률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을 해 봤는데 장관님 혹시 동의하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서삼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삼석 위원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쌀 수급 예측시스템도 빨리 도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비축사업 같은 것, 특히 비축 콩 같은 게 대표적인데 미수금도 조속히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략작물 생산 확대 이것을 저희가 조금 더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송 장관님 아니면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꼭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다음에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실 상세본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생각해 보니 상세본이 밖으로 공개가 되지 않아서 이게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좀 의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사실 국정과제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면서 의견 수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공약이 최대한 반영이 잘 되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서삼석 위원 챙기지만 마시고 그것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해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희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전재수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북극항로 거점항만 관련 연구용역 지금 준비 중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이 안에 항만별 특성화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용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항을 중심으로 하되 울산항, 포항항 또 여수항, 광양항 다 포함해서 특성별로 어떻게 육성할 거냐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수·광양항만의 경쟁력이 있고 부산항의 경쟁력이 있고 포항·영일만항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부산항만 가지고 북극항로 물동량을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정희용 위원 제가 질문드릴 게 많아 가지고,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북 7대 공약 해서 포항이 북극항로 기항지가 되도록 항만 확충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항 개발계획도 지금 준비 중에 있으신 거지요? 포항항의 개발계획, 그것은 자료 보셔야 되나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정희용 위원 그 자료 좀 보시고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리고 북극항로 관련해서 우려의 말씀도 있고 또 장관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극항로를 하려면 북극의 해빙 정도를 관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극 해빙을 독자적으로 관측하기 위한 초소형 위성 개발사업을 2022년, 2023년 추진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해외의 위성정보를 받아와서 분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2025년도 우리 대한민국 과학기술 강국이 이 북극항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는데 이 북극에 대한 위성정보를 해외 위성에 의존한다. 이것 좀 말이 안 되지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우리가 북극항로 거점항만을 유치하고 더 강점을 가지려면 오히려 우리 기술력을 이용해서 북극의 정보들을 타국에 또 선사들에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더 이니셔티브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동의합니다.

○정희용 위원 이번에는 반드시 초소형 위성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해수부 차원에서 별도의 위성을 띄우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정희용 위원 또 위성을 잘 봐야, 환경 문제도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위성을 보고, 유빙 문제도 있지만 환경 문제를 피해서 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빨리 위성이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2년 연속 유찰됐잖아요. 유찰됐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7월 달에 받주했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런데 실집행률이 과거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자료를 한번 보셔야 될 텐데 그냥 산하 연구원에 쫓으니까 100%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산하 연구원에서는 집행이 잘 안 됐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라온호 한 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대 더 늘다고 하면 2배가 아니라 3배, 4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라온호가 북극 갔다 남극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중간에 시간 다 뺏기잖아요. 빨리 한 대 더 만들어서 우리가 극지 연구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박병석 전 의장님께서 단장으로 해서 중국에 특사단 갔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문제에 대해서 왕이 외교부장한테 언급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장관님께서 우리 특사단이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했는지 들으신 바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희용 위원 이게 국민들께서 서해에다, 무단으로 우리 영해에다 막 설치하고 이러니까 공분을 사는 일이기도 한데 장관님께서 이 문제를 모르고 있다 이러시면 안 될 것 같고 빨리 좀 파악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해주권 문제하고 관련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파악을 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정희용 위원 그리고 북한 핵폐수 방류 의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가 부실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할 때 들어갔던 물질들이 있는데 북한 핵폐수 방류 의혹 조사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게 우라늄 광산, 우라늄 정련시설은 발생하지 않아서 뺐다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거면 이것 할 때도 같이해서, 여기서 나올 우려가 적다고 합시다만 같이 체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라늄 정련시설에서 나오는 라듐, 플루토늄도 가능성이 적어서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 안전 문제 또 우려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엄격하게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정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라늄 이 문제는 7월 달 특별조사가 있었고 또 8월 달에도 특별조사 두 차례가 있었는데.....

○정희용 위원 8월 달에 정점도 10개에서 7개로 줄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 없음으로 나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 수준에서 검출되는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말씀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그 성분을 좀 더 확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해 구조물 문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국익의 관점에서 비례대응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초하에서 구체적인 대응책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북극항로의 환경 문제 거론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지금도, IMO가 나중에는 친환경 선박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북극항로가 연중 항해시대가 되게 되면, 사실상 지금 중국이 한 서른다섯 차례 정도 시범운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저유황 연료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 친환경 연료를 장착하지 않으면 북극항로 운항이 어려울 정도로 아마 IMO에서 운항기준을 그렇게 정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IMO의 국제기준을 만드는데 저희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친환경 선박이나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선 설계 능력이나 건조 능력이 대한민국이 월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산업에도 상당히,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인공위성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게.....

○정희용 위원 그것도 안전 문제도 있거든요? 유빙 같은 것 체크해야 되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북극항로를 안전하게 운항을 하려면 인공위성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풍황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온이 급속도로 또 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보들을, 사실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시범운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우리 기업들에 제공을 하고.

말씀하셨던 쇄빙연구선은 저희들이 7월 달에 발주를 했는데,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북극 안전 운항과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수집을 하고 위성 문제도 함께 검토를 해서 북극항로를 잘 준비하고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북극항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오후 질의 시작한 지가 2시간이 훨씬 넘었는데요. 잠시 정회했다가 16시 30분에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어기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3차 질의, 재보충질의가 시작되는데요. 시간은 3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송미령 장관님, 아까 질의하던 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콩 수입 도입원가가 킬로그램당 1700원이에요. 판매가는 1400원인데 차액 보전을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차액 보전이요?

○서천호 위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적자를 보전합니다. 그래서 수입콩을 싸게 판매를 하고 우리 국산콩을 창고에 쌓아 두고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전략작물을 재배하라고 많이 했는데 다시 하지 마라, 관련 농기계도 콤팩트도 구입하고 트랙터도 구입했는데 정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 하는 그런 와전된 여론까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말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다음에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해서 다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 품목이 지금 76종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76종입니다.

○서천호 위원 결론적으로 현실에 안 맞다, 시기도 행정편의로 한다. 그리고 품목별로 대상 품목을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획일화돼 있다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은 뒤에 싹을 틔워야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산청이나 하동 같은 경우에는 딸기농가들이 폭우로 피해를 입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모종이……

○서천호 위원 모종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모종은 안 됩니다.

○서천호 위원 그래서 농기계, 부속 자재 등등 그래서 이 부분이 현실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배추, 상추는 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얼갈이배추, 썬배추, 양배추는 또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규정을 보니까 일관성도 없고, 어찌 보면 아까 문대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행정편의적이다라는 부분이 지적이 많습니다.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천호 위원 최근에 국내 배추 가격이 폭등이 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평년하고 전년 수준입니다, 위원님.

○서천호 위원 전월 대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월보다는 당연히 비싸졌고요.

○서천호 위원 한 44%가 지금 가격이 뛰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오늘 날짜로 6500원 정도입니다.

○서천호 위원 그래서 평년에 비해서도 한 9.1% 정도 늘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 국산 김치가 지금은 5분의 1 수준이에요, 국산 김치에 비하면. 왜 이런지, 또 이게 배추를 포함해서 채솟값 폭등이 물가 상승을 견인하지 않도록 관련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시행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춧값은 전년이나 평년하고 비교하면 지금 괜찮은 편입니다. 전년보다 한 6.7% 저렴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괜찮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 그렇습니까?

○서천호 위원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농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윤준병 위원 또 해수부장관님, 국정과제 확정이 됐으니까 국정과제에 맞게 농식품부나 해수부가 국정운영에 동참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이번에 반영된 국정과제 내용들이 과거 정부와 다른 접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내부적으로 실행 계획도 지금 보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좀 정치하게 치밀하게 보고 제대로 된 이행계획들이 잘 수립이 돼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국정철학들이 잘 이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략작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전략작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제도나 직불제 이런 측면도 예전에는 실제 지금 피상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처럼 공급이 과잉되다 보니까 일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양이 나오니까

그걸 처리하는 데 여러 가지 혼선을 빚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매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회자될 정도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전략작물 직불과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제대로 정공법으로 접근해서 전략작물의 자급률은 몇 %가 적정한지, 거기까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하는 것도 재정 투자다 이런 관점에서 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잘 녹아날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전략작물과 관련된 내용들, 쌀·밀·콩·조사로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자급률의 적정성 여부도 좀 판단하시고 거기에 공익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도 제대로 평가해서 앞으로 예산 운영하는 데 가능한 부담이 안 되도록 하면서 실효적으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제때 제값 받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걸 만들어 내는 것 이게 이제 재명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들을 좀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농정 대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농식품부의 정부양곡 정산사업 보니까 지금 농협에 가지고 있는 부채가 한 3조 5000억, 원금만. 그런데 아직도 이자 부분들이 제대로 제출이 안 돼서 확인이 안 되던데 그 부분 한번 정리를 제대로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이만희 위원**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던 농촌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요 내년 예산에 일단 반영이 된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만희 위원** 26년도부터 일단 6개 군에 시범 계획을 하는 걸로 언론보도는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일단 저희가 시범사업 계획은 지금도 다듬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예산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물론 확정은 안 됐지만 부처 단위에서는 일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부처 단위에서는……

○**이만희 위원** 이게 보니까 월 18만 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전체 주민을…… 15만 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체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 확실히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점검 한번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구감소위험지역이라 그래야 되나요, 소멸위험지역 중에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것들을 지급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어쨌든 이 부분 자체가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구상했던 농지에 관련된 제일 적은 금액, 십몇만 원씩 우리 지급했던 것 있잖아요. 월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

직불금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령농들에 대한 하나의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사실은 좀 더 정치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다고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이만희 위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기도 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태양광 같은 것도 개별적으로 그냥 막 허가하고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잘 살펴보면 그 지역에 대규모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을 만한 지리적 위치가 있는 게 별도로 또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 화북면 같은 곳이 그런 곳인데요.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들은 화북면 전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일요일에 여주에 있는 태양광 하느 일명 햇빛소득마을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을에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마을 전체에서 1MW 정도 전기를 생산해서 그걸 가지고 팔아서 주민들이 공동사업 하는 데……

○**이만희 위원** 예, 맞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쓰고 있는데 저는 아주 뭐랄까 굉장한 시사를 얻고 왔습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만희 위원** 상당히 만족도도 높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주민들이.

○**이만희 위원** 그쪽에는 마을 단위를 넘어서 먼 단위 전체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규모가 좀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영주시의……

○**이만희 위원** 영천 화북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영천시의 화북면.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해수부장관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여수 묘도 항만 재개발사업 보고받아 보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받았습니다.

○**주철현 위원** 지금 여수 석유화학산단이 위기에 빠져서 묘도에 건설되는 LNG 저장시설을 활용한, 이용한 발전시설 등 신성장산업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국가 에너지안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한데요.

지금 민자 투자는 예정대로, 하여튼 LNG 저장시설하고 발전시설은 공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용배수시설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이 거의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24년 준공이 돼야 되는데 지난 3년간

용배수시설 사업은 22년 78억 중에 700만 원만 집행이 됐고 23년 10억 원 전액 불용이 됐고 작년에는 10억 원이 편성됐는데 7억 원 감액됐고 나머지 3억 원 불용 처리돼서 사실상 3년 연속 집행실적이 전무한 상황이고요.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도 22년, 23년에 각각 22억 원을 민간에게 교부했지만 집행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24년도에 5억 원이 교부됐습니다마는 전액 이월 처리돼서 실집행이 제로입니다. 현재대로라면 24년 준공이 28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도 내년부터 열심히 잘 처리가 돼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LNG 저장탱크하고 LNG를 활용한 발전시설 가동이, 시설이 준공되더라도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가동이 지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들이 특히 정부, 해수부가 주관하는 사업인데 용배수시설 사업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 처리되도록 챙겨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위원님,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7월 달에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가 되고 8월 현재 발주중으로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용배수시설은 100%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오폐수 처리시설은 50% 보조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현재 발주 중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특히 그중에 공공시설 유보지 내에, LNG 저장탱크하고 발전설비에서 나오는 냉온 배수를 활용해서 저희로서는 신 친환경 전략품종 육상양식시설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관련 용역을 지금 여수시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은 안 됩니다만 여수시를 통해 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좀 보고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서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해수부장관님,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해서 부산이 해양수도로서 해양수산산업의 어떤 새로운 계기가 마련돼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조승환 위원 그런데 여당 의원님들 의원입법으로 해서 해양수도 이전기관 등 특별법이라는 게 정부하고 협의가 다 돼서 지금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러니까 2개,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한 것이 있고 박규택 의원 대표발의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입법 취지가 좀 다릅니다.

○조승환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부하고 협의를 한 여당 의원님들의 입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전히 이전기관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지 이게 해양수도하고 해양수산산업에 대한 내용을 전연 담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소관 상임위도 지금 이렇게 되면 국토위로 갈 수밖에 없게 되면 이 법 자체가 그냥…… 그런 의심을, 의심이 아니라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이 전체를 그냥 기관만 옮기는 하나의

그게 되지 않느냐라는 불안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한 이전 지원 특별법은 부산시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전을 하게 되면 부산시가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원의 근거가 조례가 되는데 조례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있으려면 상위법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요구 때문에 이전에 한해서만 부산시가 급하게, 조례를 만들기 위한 상위법이 있어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 이것이 대표발의가 된 겁니다.

○**조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기가, 이 계기에 사실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게 부산 지역 여론이고 해양수산 업계의 여론인데 이것만 가지고 하니까 덜렁 기관만 옮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북극항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야말 프로젝트에 의해서 자체 물량들입니다. 우리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는 물량이라고 보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래서 북극항로가 대체 항로로서의 중요성은 분명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한테 이것을 물동량의 증가, 환적화물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물동량 외 선원 교대라든지, 아까 친환경 선박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친환경 연료 부분이라든지 또는 운항장비 교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선박 관련 부가산업들까지 포커스를 맞춰 준 환적항만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새만금하고 이런 것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 중요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역이, 부산이라는 지역은 새로운 도시가 개발되는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특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급이라는 게 직원들한테 큰 혜택인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특별공급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특별공급 받는다 그러면 서쪽 끝으로 가든 동쪽 끝으로 가든 이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거에 대한 확실한 보장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과거 우리 세종 갈 때는 세종이 계속 커지니까 공급하는 데서 도움이 되니까 이게 혜택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혜택이 여기는 없으니까 그런 혜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그다음에 해양수산부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배치를 받아서, 중앙에서 뽑아서, 인사혁신처에서 뽑아 가지고 내려온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지원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강제배분에 의하게 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전 지원 외에 신규 직원들에 대한 지원정책도 마련돼야 된다, 이런 부분 좀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는 부산시의 요구에 의해서, 연말까지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기 위한 상위법이라는 입법 취지고요. 광규택 의원안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당장 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입법 취지를 가지고 대표발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북극항로를 제가 경제적 측면을 강조를 합니다만 지금 전 세계를 일본, 중국, 러시아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경제적 이익뿐만이 아니고 안보적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안보적 측면을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물동량이 받쳐 주는 그런 상업항로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물동량에 죽고 사는 그런 항만을 위해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당장 쇄빙·내빙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유조선, 탱크선 등등에 대한 수요들이 아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산, 울산, 거제도로 이어지는 조선벨트가 강력한데 수혜를 보게 되고 그러면 여기가 수혜를 보게 되면 전방산업, 후방산업 또 선박금융, 이 선박금융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250조 정도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이것이 직간접적인 경제 파급효과를 가지게 되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수, 광양, 진해, 부산, 울산, 포항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경제권역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서,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조승환 위원님께서 전 해수부장관님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해수부에 대한 애정, 애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신 것 같고. 꼭 회의 석상이 아니더라도 두 분이 자주 만나서 우리 해수부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논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고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전종덕 위원 지난 7월 28일 날 전략작물 면적 조정 생산자 회의를 하셨네요. 그 자리에서 ‘논콩·가루쌀 생산량이 늘어서 수요가 부족하고 비축 재고 부담이 있다’ 이런 언급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것이 논란이 되니까 8월 12일 날 농정협의회에서 강형석 차관께서 ‘논콩 재배면적 감축이나 예산 축소는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부 설명자료에 보니까 향후 추진 방향으로 ‘콩 수급 안정을 위해서 재배면적 조정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재배면적 감축도 예산 축소도 없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약속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전략작물직불제라는 것 있잖아요, 위원님?

○전종덕 위원 조금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략작물직불제의 축소는 없다, 그것은 계속 가는 것이다. 그런데.....

○전종덕 위원 그러면 면적 감축은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략작물직불제를 한다는 것은 벼 재배면적을 말하자면

다른 작물로 바꾼다는 의미고요.

○전종덕 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계속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은 추경으로 비축비를, 콩 비축 예산을 늘려 와서 괜찮은데 27년부터가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재배면적 감축을 하지 않으면 뭔가 대책이 없다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콩 소비를 그만큼 늘리지 않으면……

○전종덕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대책이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콩 소비를 늘리지 않으면 계속 확대가 되면 쌀 가격 떨어지는 것처럼 콩 가격도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전종덕 위원 예, 수입콩 문제도 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생산자들과 협의를 해서 수급에 맞게 우리가 생산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면적 감축이 아니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면적 감축이 아니라 소비 대책, 수급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된다, 그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정확히 맞습니다.

○전종덕 위원 타작물 전환하면서, 제가 논콩 재배 농민들을 만나 보니까 수로시설 하고 기계 많이 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용배수로.

○전종덕 위원 그것도 굉장히 비용이 논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손실을 입으면 정부 정책으로 한 거니까 책임져야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그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종덕 위원 그러면 보전 대책이나 이런 것도 지금 갖고 있는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하여튼 그래서 논콩 재배를 위해서 기계를 사신 분들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전종덕 위원 정말 실질적 대책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농정의 핵심이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관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정부가 하라는 반대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옛날부터 그런 말 있었습니다.

○전종덕 위원 이걸 정말 얼마나 불신이 크다는 걸 보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략작물은 식량자급률 차원에서 또 육성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걸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것은 쌀을 줄일 요량으로 대책 없이 이렇게 전략작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기 때문에 정말 근본적이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종덕 위원 저 한말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말씀하세요.

○전종덕 위원 농어촌기본소득 있잖아요.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이게 시범사업 예산이나 계획을 농림부에서 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럴……

○전종덕 위원 행안부가 아니고 농림부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농식품부에서 합니다.

○전종덕 위원 농식품부에서 하는데 그러면 재정 규모나 그다음에 재원 마련도 중요한데 지금 세수가 많이 감소돼 가지고 재원 마련 대책이나 이런 게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정부안 예산안이 확정되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공개하기는 어려우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현재는 상세한 재정 계획까지 공개하기는 아직 시기가 좀 그렇고요.

○전종덕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를 해야 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매칭펀드 때문에…… 기준이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전종덕 위원 어디까지 할 거냐? 마을만 할 거냐 면으로 할 거냐 지역으로 할 거냐? 여러 문제들까지 해서 오히려 지차체가 적극적으로 이것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반대로 나오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기본소득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라서요. 내년, 내후년 2년은 시범사업……

○전종덕 위원 시범사업 신청을 다 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아직 정부안이……

○전종덕 위원 아직 신청도 안 받았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대책을 잘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조속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했습니다.

논공 관련해서 이번 수해 피해가 많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좀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어기구 피해 규모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좀 파악해 봤습니다만 7월 말에 비 온 다음에 피해가

조금 있습니다, 논콩이.

○위원장 어기구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피해 대책도 좋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가 너무 큼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구 위원 전재수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해양수산부 이전을 12월 31일까지 현관식 및 업무 개시할 수 있도록 모두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강명구 위원 이전 청사로 사용할 공간 층수와 면적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21개 층이고요, 본청이. 그다음에 그것 가지고 다 안 돼 가지고 그 맞은 편에 6개 층을 더 임대했습니다.

○강명구 위원 아직 임대계약 최종 서명도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임대계약은 다 끝났습니다.

○강명구 위원 계약 끝났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끝났습니다.

○강명구 위원 연내까지 완벽하게 이전 가능할 수 있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지금까지는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개 층 총 4600평, 축구장 2개 정도 되는 규모의 공간에 리모델링 다 해야 되고 보안시설 다 갖춰야 되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강명구 위원 연내에 모든 직원들 부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환경이나 정주여건, 주거, 교통 이것까지 다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는 얘기시네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러니까 지금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특히 다른 시설이나 업무 공간이나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우리 직원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50여 분의 각기 다른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최대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저도 그런 걱정인데요. 사무실만 억지로 꾸려 놓고 공무원들 집도 못 구하고 출퇴근도 못 하는 상황까지 내몰게 되면 이게 얼마나 낭패일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결국 임대 건물이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습니다.

○강명구 위원 그런데 이게 장기적인 청사 대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어서, 준비는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연내 이전이라는 어쨌든 정치적 목표만 앞세우지 마시고, 줄속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공무원들의 근무 안정성이나 지역 정주여건 마련이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다루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장관께서 해양수산부 이전이 형식적 성과에 그치지 말고 그다음에 정치적 목표

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이전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짧게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제가 아무리 해수부장관 오기 전에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정치적 목적으로 다른 것도 아닌 중앙정부를 옮긴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장관님, 그게 정치적 목적이에요. 정치적 목적 아니면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명구 위원** 왜 이렇게 연내에 이전하겠다고 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래서 첫 번째는요……

○**강명구 위원** 시간을 가지고 공무원들 요구사항, 직원들의 요구사항까지 받아들이고 천천히 안정맞춤으로 하는 게 맞지요. 그게 정치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정치적 목적이라는 말씀에는 손톱만큼이라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전재수 장관님, 북극항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원의 미래, 물류의 미래를 열어 나가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동의합니다.

○**문대림 위원** 외교의 미래, 새로운 글로벌 패권의 미래에도 주동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문화교류, 관광교류도 있을 것이다.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장관께서 계속 항만별 기능 분담을 얘기하면서 부산항, 여수·광양 그리고 포항·울산항까지 얘기하면서 제주항을 계속 빼요. 단 한 번도 언급을 안 해요. 북극항로와 또 신남방의 교착지, 전진기지로서의 제주항, 또 북극항로가 열리면서 문화·관광교류의 어쨌든 전진기지로서 충분히 항만별 기능 분담을 얘기하면서 당연히 입에 달고 다녀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러시지요? 정치적으로 제주도 싫어하나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면 역사적으로 새로운 문명이 탄생을 했습니다. 응당 새로운……

○**문대림 위원** 이후에 항만별 기능 분담과 관련해서 용역을 할 거라고 했는데 제주항에 대해서는 빼고 기능 분담을 논하는 겁니까, 그러면?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일단은 1970년도에 제주도 제주항이 국가 무역항으로 지정이 됐는데……

○**문대림 위원** 시간이 없는데……

관리권의 문제 얘기하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래서 일단은 애초에 저희들 구상에는 여수·광양, 포항·울산·진해까지를 포괄하는 해양수도권을 만들겠다고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가 포함이 안 됐는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농림부장관님, 저메탄사료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문대림 위원** 30년까지 저메탄사료 보급률을 78%까지 높이겠다고 했는데 연도별 보급률 그리고 감축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안 보여 가지고요.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제주도가 진행하고 있는데 킬로그램당 30원씩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1년 계산하면 10만 6000원 정도 되는데 농림부에서는 한우 육우인 경우 2만 5000원, 젖소인 경우에 5만 원 정도, 2분의 1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8% 보급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어려울 듯합니다.

○**문대림 위원** 어렵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문대림 위원**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지급하고 있고 지급 방법도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이게 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배송된 사료, 거래명세서, 사료급여 장면을 촬영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탁상행정의 표본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것 반성하고요.

○**문대림 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단가 현실화를 비롯해서……

○**문대림 위원** 현실화시키고요, 본사업에 편성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문대림 위원** 시간 때문에……

○**위원장 어기구** 서면질의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희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전재수 장관님, 조금 전 강명구 위원님 질의에서 해수부 이전이 졸속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께서도 자녀분들 키웠겠지만 당장 내년 학교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직원들은 있을 텐데 충분히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고 청사 문제 다 고려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위원님……

○정희용 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끝나고 하실 말씀……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게 합시다.

○정희용 위원 산림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재난, 산불·산사태·병해충이 연중화, 대형화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산림청장 김인호 예.

○정희용 위원 그래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안이 발의돼서 내년 2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 법안에 보면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산불진화 통합 지휘를 하고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서 산불진화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예, 맞습니다.

○정희용 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난 6월의 국회 산불특위에서 산림청이 산불진화에 전문성이 없다,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도 쉽지 않다면서 산불진화 업무는 소방청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산림청장 김인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장 김인호 초동 진압을 하기에는 소방대원들의 출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사실은 초동 진압에는 효과성이 있습니다만……

○정희용 위원 좀 길게 답변하실 것 같으면 끝나고 말씀해 주시고.

○산림청장 김인호 예,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저는 청장님께서 산불진화의 전문성이 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산림청에 근무하시지도 않고 산불진화해 본 경험이 없으실 텐데 그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예산 불용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산림청장 김인호 예.

○정희용 위원 매년 불용됐는데 얼마쯤 불용되지요?

○산림청장 김인호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정확히 모르시지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불용이 매년 되는데?

○산림청장 김인호 모르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산불진화대원들이 이탈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얼마나 이탈했는지……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산불진화대원?

○산림청장 김인호 지금 들어서 49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저는 435명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청장 김인호 최근에 60명이 증원됐습니다.

○정희용 위원 작년에 퇴사한 분이 45명이래요.

○산림청장 김인호 예.

○정희용 위원 그래서 2022년도 결산 때 중도포기자 최소화를 위한 처우개선을 주문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들 하고 있는데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결국 인력이 적어서 업무가 과중한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산불백서에 2027년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늘린다고 했는지 아세요?

○산림청장 김인호 지금 내년까지는 20명 더 늘려서 555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이 산불백서에는 2027년까지 2500명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0명 늘었네요?

○산림청장 김인호 예.

○정희용 위원 그래서 처우개선도 중요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원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산불대응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경북 산불, 경남 산불 나서 피해가 엄청 컸었는데 이런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되고 있다니까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특히 산림청장님처럼 산불진화에 전문성이 없는 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제대로 현황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고, 이것은 각별히 신경써야 된다고, 처음입니다마는 주문하는 바입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명심해서 열심히 대응을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자료제출 요구 좀……

○위원장 어기구 예,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문대림 위원 농진청장님, 저메탄사료 자체 개발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 내용, 관련 예산 투입계획, 사업 추진 목표 이걸 저희 방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예.

○문대림 위원 그리고 특히 작년 다보스포럼에서 신항기술 보고서가 발표됐고 미래기술로 대체사료에 관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아스파라곰시스 양식에 대해서 들어 봤습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그건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0.2% 투입했는데 메탄 저감 효과가 98% 나타나서 호주와 미국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지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사업 계획들을 수립해서 저희 방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예.

지금 현재 저메탄사료의 첨가물, 화합물 하나는 지금 개발되고 있고요. 개발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연말까지 나올 것 같고요.

○문대림 위원 해조류 관련입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해조류는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나온 것은 화합물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예.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다 마무리됐는데요.

장관님, 저도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농안법, 양곡관리법,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한우법 이런 법들이 통과됐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이 법들에 대한 후속 대책을,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 어기구 후속 조치는 잘 되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지금 양곡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시행령 작업들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곡법이 됐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내년에 더 상향하는 것 이런 것들 예산 작업에도 양곡법을 근거로 활용해서 또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농안법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개정안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농안법을 보면, 농안법이라는 것이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 법을 실행하려면 농안기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산물안정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을 지난 3년간 검토해 보니까 기금이 약 2000억 이상 감소를 했어요. 집행력도 떨어지고 계획 대비 집행액도 줄어들고 있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님.

○위원장 어기구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안기금까지는 아직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농안기금 재원이 여러 이렇게 마련이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도 확대할 수 있고 새로운 세입 기반도 발굴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법안 만들어 놓고 가격 폭락 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래서 이 재원 마련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양곡관리법도 보통 쌀값 안정을 위해서 시장격리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놓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정부 간에 빨리 하라, 타이밍이 무지하게 중요해서 논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쌀 시장격리에 드는 비용이 문제잖아요. 이게 농협이 먼저 자체 자금으로 지출을 하고 정부가 사후정산 해 주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나중에……

○위원장 어기구 작년에 보니까 이게 예산이 어마합니다. 5858억 2300만 원이 집행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 수확기의 쌀값을 우리가 잡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수확기가 다가오는데 집행을 할 때 타이밍과 효과, 쌀값 안정에 시장격리가 정말 실체로 얼마나 기여하는지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정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농림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게 작년에도 사실은 소비량 대비 생산량 초과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정부에서 매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어기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쌀값이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참 시장 상황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올해 수확기 쌀값부터 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저희는, 이번 양곡법 도입 취지는 사후적인 시장격리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적인 수급 조절을 먼저 하자는 것이 핵심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요. 또 수확기가 다가오는데 걱정을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농민들도 이 쌀값이 과연 어떻게 정해질는지. 수확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는.

그래서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 관리도 중요하고 사후 대책도 잘 마련해야 된다. 그러려면 시장격리로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아니면 AI한테 물어봐요, AI한테. AI가 대답을 잘하고 있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 시스템도 좀……

○위원장 어기구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위원장님, 끝내시기 전에 제가 자료 요청 좀……

○위원장 어기구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 위원 조금 전 산림청장님 답변 과정에서 제가 특수진화요원이 435명이라고 그랬는데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25년 8월 현재 435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60명 더 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건가요?

○산림청장 김인호 추경 때 이번에 60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495명이 현재 인원입니다.

○정희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95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산림청장 김인호 예, 맞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제출한 거네요.

○산림청장 김인호 예, 수정……

○정희용 위원 자료제출이 왜 그렇게 됐는지 경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실로

와서 하세요, 나중에 청장님 말고 기획조정관님 오셔서.

○위원장 어기구 설명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법률안 및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5항까지 44건의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 및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사일정은 제46항 및 제47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많은 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임미애 위원님, 서천호 위원님, 이병진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조승환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및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위원님들 보좌진 여러분 모두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강명구 김선교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서천호 송옥주 어기구 윤준병 이만희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주철현

○청가 위원(1인)

이원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황충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기획조정실장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김중구

정책기획관 김정주

국제협력관 정혜련

농촌정책국장 박성우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박정훈

농식품혁신정책관 김정욱

농업정책관 윤원습

식품산업정책관 주원철

방역정책국장 최정록

식량정책관 변상문

축산정책관 안용덕

유통소비정책관 홍인기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기획조정실장 이시원

수산정책실장 홍래형

정책기획관 권순욱

해양정책관 김명진

해양환경정책관 오행록

국제협력정책관 최현호

수산정책관 서정호

어업자원정책관 조일환

어촌양식정책관 박승준

농촌진흥청

청장 이승돈

기획조정관 이상호

연구정책국장 김병석

농촌지원국장 권철희

기술협력국장 김황용

산림청

청장 김인호

기획조정관 이종수

국제산림협력관 남송희

산림산업정책국장 박은식

산림복지국장 송준호

산림보호국장 최영태

산림재난통제관 이용권

해양경찰청

청장 김용진

기획조정관직무대리 김시범

구조안전국장 박재화

수사국장 김인창

해양오염방제국장 송영구

장비기술국장 이원재

【보고사항】

○의안 회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1)

7월 31일 회부됨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4)

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25. 7. 31.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3)

이상 3건 8월 1일 회부됨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31)

이상 2건 8월 4일 회부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 8. 7.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0)

이상 2건 8월 8일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3)

8월 11일 회부됨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5)

8월 12일 회부됨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5)

이상 3건 8월 13일 회부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4)

8월 14일 회부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193)

이상 2건 8월 18일 회부됨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4)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7)

이상 2건 8월 19일 회부됨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4)

8월 22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2025. 8. 4. 어기구 의원·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8)

8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2025. 8. 14.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6)

8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8. 19.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8)

8월 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청원 회부

해병대 비비탄 난사 사건 등 동물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

(2025. 8. 3. 남언호 외 50,2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9)

8월 4일 회부됨

○소위원회 직접 회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0.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9)

6월 11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7)

이상 2건 6월 16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2025. 6. 17.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7.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7)

이상 2건 6월 18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0.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2)

6월 23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3.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3.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1)

이상 2건 6월 24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5.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3)

6월 26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2025. 6. 26.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0)

6월 27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025. 6. 30.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8)

7월 1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7)

7월 2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6)

이상 3건 7월 4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7. 8.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1)

7월 9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9.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8)

7월 10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5.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6)

7월 16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8.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7)

7월 21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025. 7. 2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3)

7월 22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2.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4)

7월 23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5. 7. 23.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4)

7월 24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고시	훈령	예규	계
농림축산식품부	0	0	5	9	7	4	25
해양수산부	3	0	9	30	6	3	51
농촌진흥청	0	0	0	1	1	0	2
산림청	3	0	1	5	4	0	13
해양경찰청	2	0	3	0	3	2	10